

## 인천로봇랜드 SPC 청산 갈팡질팡

### 시, 긴급회의에도 해법 전무

조성사업 성과 없자 해산론 급부상  
상반기 소진될 운영비 확보방안도  
공익시설 건축주 문제 등도 논의  
시 "해결책 다방면으로 찾고 있어"

인천시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특수 목적법인(이하 SPC) '인천로봇랜드㈜' 처리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시는 25일 홍순만 경제부시장 주재로 '인천로봇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가졌으나 SPC 청산 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홍 경제부시장과 김우식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상룡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김동호 인천로봇랜드㈜ 대표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으나 가장 시급한 SPC 청산 등은 다음으로 미뤘다.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소진될 운영비 확보 방안과 인천로봇랜드 사업을 이끌어갈 SPC 대체 기관 선정, 내년 준공될 예정인 공익시설에 대한 건축주 문제 또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는 지난 2009년 자본금 108억 원으로 설립됐다. 당시 정부의 로봇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공모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시가 따내면서부터다. 시는 서구 원창동 440의 1번지 일원 76만7천㎡의 터에 국·시비 1천190억 원과

민자 5천514억 원 등 총 6천70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곳에는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과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호텔·콘도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내외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오히려 시에 부담을 주는 사업으로 변질됐다.

SPC는 이미 자본이 잠식돼 올해 상반기를 버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다음 달 초께 결정되는 설계용역 관련 소송 비용을 더하면 SPC 운영비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SPC와 이 사업의 전략적 투자자인 A사 간에 2013년부터 8억6천만 원(설계비용)과 계약이 해지된 위약금(8억여 원)까지 총 17억여 원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SPC가 설립된 이후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제대로 된 성과가 없자 지역에선 "SPC를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특히 내년에 공익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상실한 SPC의 업무를 인수받을 기관이 필요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시는 인천도시공사를 생각하고 있으나 자체 부채를 줄여야 할 인천도시공사 입장에선 부실 사업으로 판명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떠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SPC의 인천도시공사 인수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공익시설 건축주도 문제다. 현재 건축주가 SPC로 돼 있어 향후 소유권을 두고 시



조업 앞둔 어민들 분주 금어기를 끌고 본격적인 조업을 앞둔 25일 인천 연안부두에서 어민들이 '만선의 꿈'을 안고 어선에 부표 등 어구를 선적하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와 주주사 간에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PC 청산은 시가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현재 로봇랜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 인천 관객 귀향 행렬 잇다

위안부 피해 아픔 담은 영화  
지역 상영관 10개 불구하고  
수도권 점유율 이례적 선두  
시민들 "꼭 보자" 인식 퍼져



인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이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다. 인천이 타 시도에 비해 영화 개봉 상영관(스크린) 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봉한 '귀향'은 인천에서 할리우드 액션 대작 '데드풀'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귀향'은 전국적으로도 개봉 첫날 1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들여 흥행 돌풍을 예고했다. 25일 오후 3시 현재 '귀향'의 실시간 예매율은 25.9%로 예매 순위 2위인 데드풀(13.2%)과 12%p 차이를 보였다.

이날 하루 인천에서 40개의 상영관을 확보한 '데드풀'을 본 관객은 1천485명이다. 하지만 이보다 적은 27개 상영관을 확보한 '귀향'은 7천300명으로, '데드풀'보다 5배나 많은 관객몰이를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귀향'의 시장점유율은 인천에서 23.0%로 서울 19.2%, 경기 2.4%보다 우위를 보였고, 전국 평균인 23.1%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귀향'이 7만여 명의 국민과 외국

인들이 참여한 모금으로 15년 만에 제작·상영되는 영화라는 게 알려지면서 꼭 봐야 할 '국민 영화'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지역 영화계는 보고 있다. 지 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흥행 대박'도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귀향'을 상영 중인 추억극장 미림의 최현준 부장은 "지난주만 해도 2곳이었던 인천의 확보 상영관이 이번 주 10곳으로 늘어나는 등 사실상 독립영화에 가까운 '귀향'이 보여준 흥행 성적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100명 이상의 단체 관람 예약 문의와 접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대안극장과 애관극장 관계자도 "상영관이 별로 없자 관객들이 '귀향'을 볼 수 있는 영화관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에서 '귀향'을 상영 중인 극장은 부평대안극장과 애관극장, 롯데시네마 부평역사, 메가박스 검단 등 10곳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는 334곳에 달한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 송도 중고차단지 '위법 컨테이너'부터 철거

인천시·연수구 "불법 묵과 못한다"  
내달 중순께 행정대집행 강행 예고  
도시공 관광단지 증자 불참도 영향

인천시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자리잡은 불법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대해 강제 철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곳에서 불법행위가 속출하는데다,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송도관광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자에 참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상 불법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2면> 25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4블록에 불법으로 조성된 중고차매매단지에 대한 철거를 강행한다. 행정대집행은 단지 내 불법 적치된 컨테이너가 우선 대상이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대집행 대신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리할 것을 권고했지만 더 이상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내항 1·8부두와 북항 배후부지 등에 수출 중고차단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있으나 3월부터

용역이 시작돼 6개월 뒤인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이 나오고, 이후 대체 부지로 확정되기까지 최소 1~2년 이상이 더 지체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시가 인천항만공사와 계획하는 인천내항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착공이 2019년이나 가능해 위법한 컨테이너와 중고차매매단지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송도관광단지 4블록을 점유한 업체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고, 폐유 등을 버리다 경찰에 적발돼 구의 행정대집행 강행 의지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구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한 시

점은 다음 달 중순께다. 구의 방침에 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도관광단지 조성이 사실상 힘들게 됐고, 송도4블록을 점유한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구가 진행하는 행정대집행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대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유예해 줄 것을 연수구에 요청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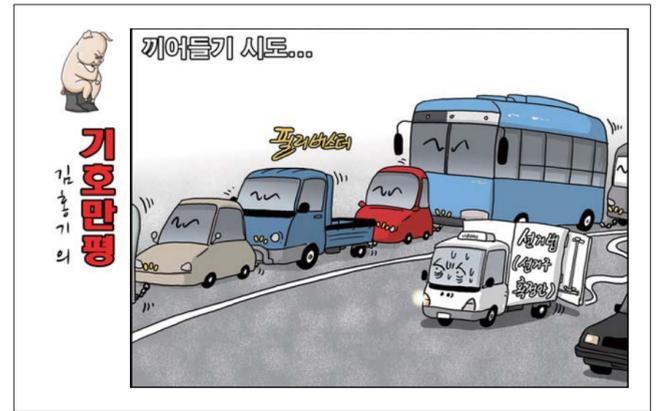
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은 원칙적으로 연수구의 권한"이라며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주민 피해가 커질 경우 그대로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4·13 일기 속으로 D-47  
선거구별 누가 뛰나 > 5

제65회 3·1절 단축마라톤  
코스 미리 살펴보세요 > 17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지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

# 단원고 '존치교실' 그대로 둔 채 교실 확충 위한 리모델링 박차

### 교장실, 외부 컨테이너 이전 교무실 등 빼서 교실로 대체

세월호 참사 당시 2학년 학생들이 사용하던 '존치교실'로 인해 교실 부족 문제를 겪는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교장실을 건물 밖으로 이전했다.

단원고는 본관 외부 학생 휴게 공간인 정자 앞에 1천700만 원을 들여 25일 오전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 1개 동은 교장실로, 2개 동은 스킨다터실로 각각 쓰기로 했다.

'컨테이너 교장실'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난 추교영 교장 후임으로 다음 달 부임하는 정광윤

신임 교장이 사용하게 된다.

컨테이너 교장실 안에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과 컴퓨터 등 집기류를 들여놓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파와 탁자도 마련된다. 바닥에는 온돌을 깔고,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해 냉난방도 가능하다고 단원고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의 1층 교장실은 일반 교실 면적인 66㎡로, 신입생들이 사용할 1학년 1반 교실로 바뀐다. 5층 스킨다터실은 집중학습실로 활용될 예정이다.

컨테이너로 교장실을 대체하더라도 7개 교실이 여전히 부족하다. 단원고 교실은 총 40개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12학급(300여 명)

을 합쳐 38개 교실이 필요하다. 이중 존치교실 10개를 뺀 8개 교실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단원고는 지난 20일부터 교실 확보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 교감실과 본교무실을 도서실로 옮겨 교실 2곳을, 음악실과 컴퓨터실, 교사준비실을 각각 없애 교실 4곳을 만들기로 했다.

또 특수학급 교실로 사용하려던 교실 1곳을 일반 교실로 전환기로 했다. 1~2층은 1학년, 2~3층은 2학년, 4~5층은 3학년 교실이 각각 배치돼 2학년 학생들은 존치교실과 같은 층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원태 기자 myt@khihoilbo.co.kr

# 127억대 중고차 밀수출 3개 조직 적발

### 관세청·인천경찰 특별단속 압류·도난 고가 외제차량 등 수백대 폐차 직전 둔갑시켜

압류·도난차량 등 고가의 차량을 폐차 직전의 차량으로 둔갑시켜 대규모로 밀수출한 조직이 달미를 잡혔다. 람보르기니(1억5천만 원)와 아우디(1억4천만 원) 같은 고가의 외제차도 밀수출에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차량 밀수출에 대한 특별 기획 단속을 벌여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시가 127억 원 상당의 중고차 수백 대를 밀수출한 3개 조직, 1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 기사 19면>

이 중 통관업무를 맡은 차모(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구속하고, 김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주한 장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고 인터폴과 함께 행방을 쫓고 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중고차 455대를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 편으로 해외에 팔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차 직전 차량을 말소등록한 뒤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에 신고한 뒤 밀수출 차량을 컨테이너에 실어 선박 편으로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들 중 두 조직의 총책을 맡은 김모(41·지명수배)씨는 외국인 명의 유명회사를 차리고 범행계획을 짜는 등 밀수출을 주도했다. 구속된 차 씨와 송모(52)씨 등은 수출서류를 변조해 차량을 통관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김 씨 밑에서 모직책으로 활약한

박모(39·구속)씨는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를 통해 정상 거래가 어려운 차량을 시세의 40~50%에 매입했다. 이들이 구입한 차량은 압류차(168대, 대포차(53대), 리스차(45대), 도난차(42대), 저당권 설정차(36대) 순으로 말소 등록이 어려워 수출이 불가능한 중고차였다.

중고차 수출물량이 연간 10만~20만대에 달해 컨테이너에 일단 실리면 세관이 모두 개봉 검사를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인천시, 세계수의사대회 성공 개최 지원

인천시가 수의학계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수의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르네 칼슨(Rene Carlsson) 세계수의사회장을 만나 오는 2017년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WVC)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과 칼슨 회장은 세계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람과 동물 간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2017년 8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33차 세계수의사대회는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30차 세계수의사대회에서 인천 개최가 확정됐다. 당시 인천관광공사와 대한수의사회는 공동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해 경쟁을 벌이던 태국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2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와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www.motie.go.kr

##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

## 전신협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등 공동 추진”

### 시장단·편집국장 회의 개최 4·13 총선 차별화 전략 모색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전국 24개 지역일간지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총회 및 사장단 정기회의, 편집국장 회의,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장단 회의에서는 전신협 대외 활동 강화 방안을 비롯해 20대 총선 공동 보도, 한국언론재단 광고 수수료 감면 추진, 한국전통대학교육협의회 업무협약 추진 등을 논의했다. 회원사 간 공동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

벌 개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중석 회장은 “추후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역연락 간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며 “지역 스스로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사장, 경기일보 신선철 회장, 경남도민일보 구주모 사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경상일보 하성기 사장, 광주매일신문 남성숙 사장, 기호일보 한창원 사장, 남도일보 박성호 사장, 대구일보 이호혁 사장, 울산매일신문 이연희 사장, 전남매일 최영기 사장, 전남일보 임영섭 전무, 전북도

민일보 김택수 회장, 제민일보 백승훈 사장, 중도일보 김원식 회장, 중부매일신문 이정 사장, 충북일보 성원규 회장, 충청투데이 김도훈 사장, 한라일보 김건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신협 회원사 편집국장들도 이날 4·13 총선 보도 차별화 전략회의를 갖고 각 당 대표와 선대본부장 인터뷰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 전신협 총선 홈페이지를 구축, 전국 각 지역의 총선 상황을 알리고 지역의 공동 여전다를 설정해 보도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이 열려 강원도민일보 서영 사진영상팀장 등 24명이 수상했다. <전신협 공동취재>

## 도내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에 경찰·센터 ‘안전메신저’가 한몫

경기경찰이 다문화 가정폭력 사건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안전메신저’를 구축,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안전메신저란 경기도내 각 시·군 다문화센터의 방문지도교육사와 경찰서의 외국인자율방범대에 속한 내·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시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상담하고, 피해사례 발견 즉시 담당경찰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6월 안전메신저인 하남시 다문화센터의 방문교사 A씨는 중국인 조모(29·여)씨의 집을 찾아 한국어 교육을 하던 중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듣게 됐다.

2007년 결혼한 조 씨는 2년 전부터 남편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당하기 일쑤였고, 욕설 섞인 폭언이 시달리던 터였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머니를 모시고 살던 조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마저 심해지면서 결국 A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다문화센터에 이를 알렸고, 담당경찰관인 하남경찰서 김지에 경장이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조 씨를 가정폭력상담소

에 연결해 쥬 외부 전문가와 함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상담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일종의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 전담팀 역할을 하는 안전메신저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안전메신저를 7개월에 걸쳐 전 경찰서로 확대했다. 경찰관과 외국인 피해자의 언어·문화가 달라 신고부터 조치까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문화센터 교육사나 외국인자율방범대는 다문화가족의 선생이자 이웃이어서 피해자들이 폭력을 당한 사실을 비교적 쉽게 털어놓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다문화센터가 없는 과천을 제외한 40개 경찰서에서 775명의 안전메신저와 연락망을 구축,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그 결과 도입 초기인 지난 한 해 안전메신저를 통해 접수된 다문화 가정폭력 신고는 43건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벌써 39건(1월 말 기준)이 접수됐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면 오늘 여성구직자 ‘일뜰날’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는 26일 오후 1시 센터내 차오름홀에서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뜰날’은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케이텔, ㈜다모요, 쿨디자인 등 14개 업체가 현장면접을 진행해 웹디자인, 경리사무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생산직 등 4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유엔아이(생산직), ㈜협성그룹(사무보조원), ㈜코모(니트제조 생산직) 등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센터가 구직자 알선과 함께 동행면접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3D프린팅지도, 패션컨설팅 등 유망직종 체험행사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직업적성 탐색 ▶취업 준비 컨설팅 ▶면접메이크업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여성 창업아이템 소개 ▶상권 분석 및 창업 컨설팅 등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코너도 준비된다.

문의: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취업지원팀 ☎031-8008-8075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 강화·서울·연수구, 선거구 확정 관련 유언비어로 몸살

4·13 총선 선거구 확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인천지역 예비후보 및 유권자들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의 국회 제출시한인 25일을 지키지 못해 여야가 합의한 26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문제는 특정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온갖 루머가 퍼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정된 이날 오전부터 SNS를 통해 최대 관심지역인 강화군 편입지역과 서

## 4·13 총선 리포트 온·오프라인 혼란 가중

을 및 연수구 등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급속도로 전파됐다.

강화군의 경우 중구와 옹진지역으로 병합하고 동구는 남동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SNS를 통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퍼졌다. 오후에는 중·동·옹진지역으로 다시 편입하는 쪽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인구상한선 28만 명을 넘어선 갑·을로 분류되는 연수구의 경우 당초 을 지역구에 원도심의 동춘1·2동

## 편입·분리지역 놓고 뜬소문 '모락'... SNS 등서 급속히 확산 시선관위 간부 부적절 발언도 한몫... "오해였다" 수습 나서

과 옥련2동이 편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 지역구는 송도동만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는 소문이 하루 종일 연수구에 돌았다.

강화군이 빠져나간 서울 지역도 청라1·2동이 편입되고, 편입이 예상됐던 검암·경서·연희동 등은 갑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같은 소문은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무산됐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S

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으며, 중·동·옹진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각 정당과 선거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이 같은 소문 확산에는 인천시선관위 관계자의 신중치 못한 언행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인천시선관위의 한 간부는 지난 24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총선 예비후

보 회계책임자 교육에서 확정하지도 않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발언했다.

당시 이 간부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강화가 중·동·옹진으로 가는 등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고 있어 이제는 마음껏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수십 명의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관계자들이 선관위 간부가 말한 내용을 직접 들었고 이 내용은 입소문을 타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는 "국회 본회의

에서 통과돼야 확정되는데, 강화가 중·동·옹진으로 오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다만 처음에는 강화가 계양하고 말이 나오다가 이제는 중구와 옹진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가 국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ijh@kioilbo.co.kr  
이병기 기자 rove0524@kioilbo.co.kr



## 유 시장, 장애인체육회 대의원총회서 선수육성 약속

인천장애인체육회는 25일 로얄호텔 영빈관 2층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대의원 29명, 감사 2명 등 총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2015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 장애인체육회 사업계획 및 예산 현황 등도 보고했다.

유 시장은 "최근 건강 증진과 여가시간 활용 증대 등에 대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가 확대되

고 있지만, 비장애인을 위한 체육 시설은 증가 추세인 반면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며 "이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이달 착공, 내년 5월 준공해 장애인체육선수를 양성하고 장애인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최유탉 기자 cyt@kioilbo.co.kr

# 인천, 올해 온실가스 감축 '올인'

## 녹색성장위원회서 목표설정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도시 인천이 기후산업 육성도시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시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전성수 행정부시장 주재로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2016년도 제1회 인천시 녹색성장위원회'

를 개최했다.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민간공동위원장인 김중대 인하대 교수와 27명의 환경전문가가 함께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및 인천녹색기후클러스터기본계획, 인천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 제시됐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

장 국가전략 실행을 위한 중기 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한다. 시가 지난해까지 진행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사업은 비교적 성공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체 72개 사업 중 68개 사업(94%)이 정상 추진됐고, 4개 사업(6%)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향후 GCF 연관 산업, 기업 및 연구기관을 집중시켜 네트워크 형성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녹색성장 5개년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적극 검토·보완해 모든 사업의 정상 추진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성수 부시장은 "올해를 '온실가스 감축 원년의 해'로 정해 시민이 주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하겠다"며 "인천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oilbo.co.kr

# 서구의원, 조례안 심의때 구청직원 폄하 논란

## 상위법에 위배 의견 제기하자 "서울대 나온 변호사 검토"발언 동료의원·공노조 등 비난 일파 "전문성 인정해 달라"는 것" 해명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이 변호사 출신인 구청 직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구의원의 폄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4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조례안을 발의한 A의원은 조례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변호사 출신의 B팀장을 겨냥했다. B팀장은 법률자문 역으로 A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이 상위법

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었다.

A의원은 "로펌은 800명 정도 되는 변호사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다 부장검사나 부장판사들"이라며 "B팀장은 판사나 검사도 안 하고 변호사로 바로 교육받고 나와 조례안을 제대로 해석해 반대하고 있다"고 B팀장을 겨냥했다.

A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C로펌과 법무공단을 통해 의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료 의원과 노조의 반발을 막지는 못했다.

당장 동료 의원인 이한중 의원은 25일 열린 제20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서구청 직원인 변호사 출신 팀장을 자신이 의뢰한 로펌과 법무공단 변호사와 비교해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의 부장검사나 부장판사가 아니면 변호사가 아니

란 말이나"고 따져 물었다. 노조도 발끈했다.

서구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A의원 말대로라면 구의원도 서울대를 나와야 자격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며 "학벌이나 지연을 지향하는 고리다분하고 권위적인 행태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당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향후 공식적인 노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쟁점은 상위법 위반 여부"라며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법무공단 변호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는 표현을 한 것일 뿐, 누구를 폄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상위법 위배 논란이 일었던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한동식 기자 dshan@kioilbo.co.kr

## 인천시, 광역형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대상 선정

인천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선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3.0 협업부처로부터 시가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문을 열고 서구 및 강화군 지역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어 광역형으로는 처음 설치된다.

신설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지난해 설치된 인천장조

경제혁신센터 고용존과 연계해 인천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등 5개 구를 서비스 대상 지역으로 한다.

센터에는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인천고용센터, 남동구 새일센터, 남동산단 새일센터,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서민금융센터담당자 등이 함께 근무한다.

특히 취업 지원, 취업 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자활 지원, 복지급여상담, 민간복지연계 등 다양한 복지·상담서비스도 펼친다. 이재훈 기자 ijh@kioilbo.co.kr

## 내년 국고 1552억 확보 강화군 1차 대책보고회

강화군은 지난 24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1차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열악한 강화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날 신규사업 54건, 310억 원을 추가 발굴하고 2017년 국고보조금 신청액 1천552억 원의 1차 신청안을 마련했다. 이는 2016년 1천143억 원보다 43% 증액된 규모다.

강화·김학호 기자 kimho2@kioilbo.co.kr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Dream of Incheon, the Vision of Korea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활성화로 풍요로운 인천 시민의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가치 창조를 하겠습니다.

## INCHEON FREE ECONOMIC ZONE

서비스산업의 전진기지화 | 최고수준의 투자환경 | GREEN SMART CITY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5500억 특별 대출

## 대출기간 3년 이상... 금리 최저 1.5% 시중보다 낮게 책정

정부는 25일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철수한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천500억 원을 특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 이뤄진 특별대출 3천500억 원보다 2천억 원 확대됐고, 대출기간도 2013년 1년 만기에 서 이번에는 3년 이상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대출금리의 경우에도 남북협력기금 1.5%, 중진기금 2%, 국책은행 및 신·기보 평균 3% 수준으로 시중금리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 황 총리 "요주의 선박 입항 때 보안 강화"

##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황교안 국무총리는 25일 "요주의 선박 입항 시에는 보안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별도 접근구역을 설정해 입·출항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국제적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요 관문인 항만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막중한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을 지키는 담당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 속에서 항만의 경비·감색·점검 등의 보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보안사고에 취약한 구역에는 CCTV 등 보안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고, 경비업체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사고의 전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사의 선원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 "문희상 공천 배제, 용인할 수 없다"

##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의원들 철회 촉구 "원칙·기준도 없는 불합리한 이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문희상(70·의정부갑)국회의원이 20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의정부시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들과 의정부갑 당원들이 공천 배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영일 더민주 의정부갑 지역위원장 등 당원 100여 명은 25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정부지역 당원들은 문 의원에 대한 당의 공천 배제 통보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앙당의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문 의원의 공천 배제는 경기북부 지역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지역은 당 지지도가 새누리당에 15% 이상 뒤

지는 절대 열세지역"이라며 "문 의원이 총선에서 의정부갑 지역을 사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등 더민주 시의원 7명도 지역위원회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원칙과 기준도 없는 공천 평가로 문 의원을 학살하는 현재의 절차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불합리한 밀실공천 방식으로 문 의원을 밀어내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공천심사위원의 상세 평가점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중앙당이 타당한 설명 없이 공천 배제를 감행한다면 사활을 걸고 결사항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의원의 공천배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더민주 의정부갑 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 의원의 공천 배제 즉각 철회', '의정부갑 당원 모두는 문 의원 이외의 어떤 후보도 인정할 수 없다', '부당한 공천 배제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이적 신청을 하고 당원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정부갑 2만여 당원 전원 탈당' 등을 중앙당에 선포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 박환우 "평택 발전 위해 국민의당 입당"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으로 입당한다고 밝혔다. <사진>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평택의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험난한 길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국민의당에서 평택지역 발전의 열망을 담아내고, 사회통합 관점에서 평택의 평화를 지키는 민생을 돌보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평택지역 범야권 선거연대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평택시의회 박환우 의원이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 정책 연합이 이뤄지지 않고선 승리하기 어려운 현실로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홍장기 기자 jtk@khihoilbo.co.kr

## 4·13 이 소리 저 소리

### 거짓 지하철 공약 주장, 착각 따른 실수

#### 성남중원 윤은숙 공식 사과 "신상진 측 4년 전 자료 오해 구민 혼란 야기... 삭제해야"

국민의당 성남 중원 윤은숙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신상진 예비후보의 신사~위례선(연장선) 지하철 공약 거짓 주장<본보 2월 24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윤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예비후보의 블로그에는 성남 원도심 노면경전철 완성이라는 공약이 게재돼 있으나 작성일(2012년 3월 29일 19대 당시 공약)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 이를 이번 공약으로 착각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 예비후보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를 네티티브할 의도는 없

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19대 총선 공약이 아직도 블로그에 게시돼 구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삭제해야 했고, 원도심 노면경전철 공약이 폐기된 사유를 구민에 밝혀야 한다"며 "신 예비후보 공약이 4년 전 노면경전철에서 지하철로 변경된 것인지, 전부 지하 노선인지 밝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예비후보는 신 예비후보에게 위례 연장선 노선 문제점을 제기한 무소속 김미희 예비후보와의 공개 합동 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윤 예비후보의 위례~신사선 연장선 거짓 공약 주장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로 24일과 25일 중원구 선관위와 중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hihoilbo.co.kr

## 4·13 출사표

### 화성민생 우리가 쟁긴다... 거리청소 석호현 vs 시민소통 진재광

새누리당 화성을 석호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민생투어 일정으로 지역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빗자루를 잡고 거리 청소소에 나섰다. 25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거리 청소소에서 함께한 환경미화원들은 "아직도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종·삼종의 업무상 애로사항과 거리 무단 투기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석 예비후보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늘 응원하고 있다"며 노고를 위로하고, "민생 체험으로 체감지수가 높아진 만큼 미화원 여러분의 업무상 애로와 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화성을 진재광 예비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포괄적 경제 교류 및 동반성장에 대한 발전 방안의 내용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진 예비후보는 25일 시민들과



석호현 진재광 만나 내수 부진, 인건비 상승, 납품단가 인하 압력, 인력 수급 차질 등 현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 류화선 "황진하·서창연, 공개토론회 열자"

류화선<사진>새누리당 파주를 예비후보가 같은 지역구 경선 상대인 황진하·서창연 예비후보에게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류화선 예비후보는 25일 "이번 총선은 낙후돼 있는 파주를 선거구 발전에 기틀이 되는 중요한 선거"라며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위해 황진하·서창연 두 예비후보에게 공개 정책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감행과 우리 측의 개



성공단 폐쇄 및 대응 등으로 파주지역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참패된 북파주 지역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다"며 "파주가 안고 있는 장단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파주시민과 당원들에게 공개 정책토론회를 통한 후보 선택 판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g@khihoilbo.co.kr

### 정미경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 발의

새누리당 정미경(수원을·사진) 국회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담긴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을 각각 발의했다.

25일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

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새누리당은 사회적 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해 9월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는 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석훈·김명

연·박대웅·윤영석·홍철호 의원과 7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기운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 당 결정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를 것

#### '컷오프' 더민주 입수경 SNS 통해 수용의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0%'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된 입수경 국회의원은 25일 당의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 의원은 파주갑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전날 컷오프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았다. 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는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우리당의당원으로 당의 결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았나 보다"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에 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 총선 리포트 예비후보들 줄마·지지 호소

### 野 심장서 한몫 바칠 것 인천 계양갑 김현중

노무현정부 '경제통'으로 불렸던 김현중(사진)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 계양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믿어 줬던 경제통상 협상 전문가"라며 자신을 소개한 뒤, "야권의 심장인 계양갑 구민을 위해 한몫 바칠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로 발탁된 김 예비후보가 계양갑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신학용 의원 불출마로 새롭게 등장한 야권 대표 주자가 무려 5명으로 늘었다. 이재훈 기자 lih@khihoilbo.co.kr

### 정치 개혁 완수하겠다 여주·양평·가평 정병국

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사진) 국회의원은 25일 여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행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한 표, 한 표 모아 주신 소중한 권리로 지금의 정병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며 중단 없이 지역발전을 이어나가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이끄는 한편, 5선 국회의원이 돼 정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 진정한 의정부 출신 강조 의정부갑 이건식

새누리당 이건식(57·사진)의정부갑 예비후보는 25일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쌓아온 입법·행정 경험과 사회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정부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부지역 미군 반환공역지 개발에 대한 질문에 "반환공역지를 공원이나 행정타운으로 바꾸기보다 현 시설을 활용할 것"이라며 "UN빌리지 등 한미 우호를 담당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답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 시흥발전 최종 완수 다짐 시흥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사진)국회의원은 25일 시흥시청 시민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원선거 시흥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역을 넘어 경기도 대표 정치인으로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시흥 발전을 최종 완수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4년 시흥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뛰었고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신세계 아웃렛 조성공사, 월곶~판교 전철 건설 착수 등 시흥주민 숙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고 지난 4년의 의정활동 성과를 소개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lee@khihoilbo.co.kr

140924-8-624998  
진료내역: 암, 뇌,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대표전화 1600-8291

# 선두권 2명 지지율 '엎치락뒤치락' 파주 민심 잡기 치열

## 우리지역 누가 뭐나

### 파주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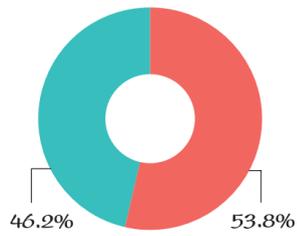
파주읍 지역은 새누리당의 경우 현직 사무총장인 황진하(71)예비후보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파주시장을 역임한 류화선(69)예비후보 간에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 예비후보가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선두를 차지하며 본선에 버금가는 경선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같은 당 예비후보로 등록된 서창연(49)예비후보는 이들 두 예비후보를 따라잡기 위한 홍보전을 강화하는 중이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54)파주읍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공약들을 시리즈로 제시하고 지역 현장을 누비며 지지층을 넓히고 있다.

제19대 파주읍 후보자별 득표율



4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황진하 예비후보는 최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4일에는 전·현직 도의원과 시의원 33명이 황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4선 도전 황진하 vs 전 파주시장 류화선 파주 곳곳 돌며 소통하고 지역발전 약속 서창연 '40대 기수론' 들고 출사표 던져 더민주 박정 실생활 맞춤형 공약 내세워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민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 예비후보의 최대 경쟁 상대로 주목받는 류화선 예비후보 또한 지역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바닥민심을 훑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류화선(새누리) 서창연(새누리) 황진하(새누리) 박정(더민주)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며, 파주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황 예비후보를 겨냥하고 나섰다.

류 예비후보는 최근 '10가지 꿈' 공약을 발표하며 "파주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싸움닭을 자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에는 3선의 경기도의원을 지내고 GTX·3호선 파주 출발 시민추진단장인 김광선 전 도의원이 류 예비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황진하 예비후보는 지난 12년간 의정 활동으로 위명업을 끝냈다고 했지만 파주시민은 위명업만 즐기는 대표 선수를 원하지 않는

다"며 "12년 동안 못한 사람은 4년이 더 주어져도 못한다"고 황 예비후보에게 날을 세웠다.

서창연 예비후보는 4년간 파주에 살면서 낙후된 모습을 보고 균형발전을 위해 젊은 일꾼으로 출사표를 던졌으며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한 박정 예비후보는 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벽 출근인사를 해 왔다. 21일에는 김상근 전 경기도교육감과 윤성모 전 문산동중 교장 등이 박 예비후보의 공동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박 예비후보는 최근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남북 간 교류협력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개성공단을 폐쇄한 정부의 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며 파주 통일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주=김준구 기자 kimjk@khihoilbo.co.kr

# 與 4명 공천티켓 놓고 경쟁... 野 재선 도전하며 '출사표'

## 우리지역 누가 뭐나

### 고양 일산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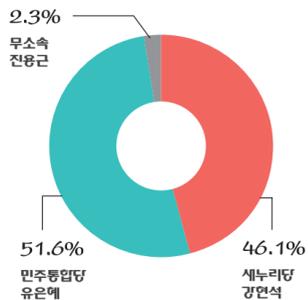
4·13 총선에서 고양시 4개 선거구 중 일산동구의 유권자 표심은 여야 간 수도권 승부의 분수령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산동구의 경우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총선 때마다 당선자가 바뀌면서 여야 간 판세의 가능자를 세우기 힘든 박빙의 격전지로 분류된 수도권 최대의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현 의원이 당선됐지만 18대 총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 백성운 전 의원이 당선됐고, 17대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필승 의지로 선거구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백성운(66)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현역 비례대표 이운룡(54)의원, SBS 정치부장 출신으로 종편 스타 패널인 정군기(55)홍익대 교수, 김현복(51)전 당협위원장 등 총 4명의 예비후보가

제19대 고양 일산동구 후보자별 득표율



뜨거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치열한 당내 경선을 승리로 이끌며 본선 티켓을 거머쥔 후보는 누가 될까?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이 강하게 쏠리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유은혜(53)의원만이 단독 공천을 신청한 가운데 일찌감치

새누리 백성운·이운룡·정군기·김현복 정치 경력 등 바탕 선거구 탈환에 총력 더민주 유은혜 선거캠프 본선제체 전환 "정권 독주 막아야 한다" 표심 견인 매진

선거캠프를 본선 체제로 전환해 재선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물론 유 예비후보도 이번 선거가 예전처럼 야권 단일화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가 유력 경쟁자였던 새누리당 강현석 전 고양시장이 불출마하며 백의중군에 나서 새누리당 표심을 크게 견인하고 있는 만큼 결코 자신할 수 없는 입장이



김현복(새누리) 백성운(새누리) 이운룡(새누리) 정군기(새누리) 유은혜(더민주)

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일산동구의 금배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새누리당 4명의 예비후보 중 백성운 예비후보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마지막 고양군수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일산동구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고양시장 경선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현재 인지도 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대전고와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새누리당 당직자로 잔뼈가 굵은 이운룡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인물로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백성동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선

거체제로 준비해 왔다.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SBS 정치부장을 거쳐 종편에서 유력 정치평론가로 활동한 정군기 예비후보도 또다시 출사표를 던지고 그동안 다져온 확장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 표심을 두드리고 있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와 국회의원 보좌관과 도의원 등 일선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현복 예비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더민주 유은혜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의 관문으로 반드시 새누리당 정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좌절 없는 세상,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바로 세워 정적함과 성실함이 힘을 얻는 사회를 이루겠다"는 출사표를 던지고 재선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처럼 여야 모두 결코 질 수 없는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고양시 일산동구는 전체 11개 동에 상주인구 28만4천110명 중 선거인수 22만5천231명이 54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 방송연출/미디어콘텐츠 전문가양성과정

## 인천콘텐츠 코리아랩 융합창작 프로그램

교육기간 2/1 ~ 3/23 교육장소 OBS경인TV, 한국폴리텍2대학 인천캠퍼스

융합창작방송연출자 전문가양성과정  
영상기획 및 제작, 연출, 촬영 등 방송 실무 관련분야 전문교육  
융합창작 미디어콘텐츠 전문가양성과정  
미디어콘텐츠 개론부터 콘텐츠 기획, 디자인, 제작 등 관련분야 전문교육  
현재 교육 진행중!!! 2016년 하반기에도 교육은 계속됩니다!



# 경기도 수출, 전년 비 25% 감소 7년 전 금융위기 이후 최고 낙폭

##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부진 영향

지난달 경기도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25일 발표한 '경기도 2016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5% 감소한 70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80억 달러, 무역수지는 10억 1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수출 부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1월 도내 당월 수출증가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5.5%를 기록했으며, 일평균 수출도 작년 1월에 비해 일일 9천만 달러 감소한 일일 3억 1천만 달러 수출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광학기기 수출이 소폭 증가했으나 반도체 등 주요 IT

제품(반도체, LCD, 무선통신기기 등)을 비롯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월에는 4Gb D램 현물가격이 개당 3달러6센트 수준에서 올 1월에 개당 약 1달러9센트로 크게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71.1%) 수출도 국내 생산기지가 있는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종찬 경기지역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며 "상반기 중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과 바이어 찾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해 수출위기 극복과 관내 업계의 해외 마케팅 및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몽골 에너지부와 집단에너지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벨그르트속트(왼쪽) 몽골 에너지부 차관, 이기만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직무대행.

## 몽골 집단에너지 효율화 도전

### 한국지역난방공사 협약 체결 열에너지 공급 불균형 등 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3일 분당 본사에서 몽골 에너지부 벨그르트속트 차관과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효율화, 지방에너지센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창립 30주년 집단에너지 국제세미나에서 체결한 한국·중국·EHP(유럽)·IDEA(미국) 간 집단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를 위한 후속 협약이다.

이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몽골 집단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원 결합 집단에너지 사업 등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기만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전기 및 열에너지 공급 불균형 문제,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 및 지방의 부족한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 PEMSEA 사무국장 안산 방문 동아시아 해양환경 협력 논의

동아시아 해양 관련 최대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이하 펜시) 아드리언 로스 사무국장은 25일 안산시를 방문해 동아시아 해양환경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제철집시장과 아드리언 로스 사무국장은 이날 대부분 생태계 보전 및 관리계획 등 안산시의 해양·연안생태계 관리모델의 성공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한 펜시의 기술·정책적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드리언 로스 사무국장은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16년 펜시 지방정부네트워크(PNLG)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펜시의 다양한 기술적 조언과 지원을 약속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 연천소득자원연구소 청사 증축 도북농업발전 세미나도 열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5일 연천 소득자원연구소 청사 증축 기념 준공식 및 '경기북부농업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양복안 행정2부지사, 김정기 연천부군수, 대학교수 및 연구자, 산학연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소득자원연구소는 이번 증축을 통해 작목개발실(400㎡)을 리모델링하고, 북부농업인 교육을 위한 회의실(453㎡)을



확보했다. 연구 기반이 조성된 만큼 인삼, 콩 등 북부농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진행된 경기북부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경기인삼공상 허병혁 대표의 '경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 증진 방안', 한국연구재단 박공룡 박사 '경기농업 자금 기반 확보를 위한 육성 방안', 소득자원연구소 한영희 소장의 '경기북부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 육성 방안'

등이 발표됐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한중, 한·캐나다, 한미 FTA에 대응한 경기 인삼·콩산업 활성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 개성공단 기업에 100억 원 긴급지원

한국은행 경기본부  
오늘부터 신청 접수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소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5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 원) 이내다. 지원 방식은 금융기관이 취급한 대출액의 50%를 한국은행이 해당 금융기관

에 저리(연 0.75%)로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경기본부(☎031-250-0093)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 평택항 자동차 수출입처리 1월 한달 10만8000대 달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월 평택항을 통해 10만8천782대의 자동차가 처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6만2천725대, 수입 2만1천962대, 평택항을 경유한 한적차량은 2만2천181대로 집계됐다. 제조사별 물동량은 수출차량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5만4천141대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 4천857대, 쌍용자동차 2천970대를 기록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정진걸 항만물류과장은 "연간 누적 처리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12만3천824대, 12.15%)했지만 올해도 물동량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흥정기 기자 hjk@khihoilbo.co.kr

## LH, 도내 15곳 넓은 집 고쳐 '임대주택'으로

### 저소득층 주거안정·도심정비 내달 4일까지 매도 신청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올해부터 도내 과천·광주·군포·성남·수원·안산·안성·안양·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지역의 넓은 주택을 매입해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 직접 리모델링(재건축)해 임대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된 단독·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으로 현재 주택 전세가 공가이거나 연내 공가 예정인 주택으로 한다.

이번에 도입된 LH의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넓은 주택을 매입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LH는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 방식만 시행했으나 공급물량 부족과 정부의 중산층 주거안정화 방안에 따라 이같은 사업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매도 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4일까지 LH 경기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성, 생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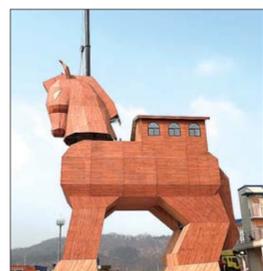
의성, 임대수요, 공사 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실태 조사를 진행한 후 매입 대상을 선정,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1인 가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넓은 공공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함에 따른 도심 정비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매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LH 경기지역본부(☎031-250-8325, 822)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 여주에 '트로이 목마' 등장... 산림조합중앙회 제막식 가져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4일 영동고속도로 여주나들목 인근에 국산 목재 50㎥를 이용한 높이 25.16m의 세계 최대 크기 '트로이의 목마'를 완성하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막 행사를 가졌다. <사진> 세계 최대의 '트로이의 목마'는 국내 건설 현장 및 건축자재 시장에서 외국인 목재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17%대의 저조한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국내 목재시장에서의 국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작됐다. 현재 국내 목재시장에서 수입·

유통되는 목재들은 주로 말레이시아·파푸아뉴기니·미국산 등으로 2014년 기준 300만㎥, 연간 49억 달러 규모의 원목과 제재목, 합판 등이 수입되고 있다. 외국인 목재의 사용 증가는 국토 면적의 64%에 이르는 우리 산림의 임목자원 생산력과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산림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임목생산 임업인과 전체 산림면적의 68%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이 산림경영을 외면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지속가능한 산림 환경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u@khihoilbo.co.kr

#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

인천 3·1 독립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1부. 기념식

**일시** : 2016. 3. 1.(화) 11:00  
**장소** : 창영초등학교 운동장  
 (3.1독립 만세운동 인천 최초 발상지)  
**주요내용** :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태극기 플래시 몹

### 2부. 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

**일시** : 2016. 3. 1.(화) 11:45 ~  
**이동구간** : 창영초등학교→배다리삼거리→동인천북광장  
 ※ 행사진행시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오니 협조바랍니다.






# 부평지하도상가 ‘글로벌한 변신’



區, 올해 7억6000만 원 투입  
기반시설 개선·홍보 강화 등  
문화관광시장 특화에 역점  
크루즈 관광객 유치 위한  
전용 대중교통지구도 조성

인천 부평지하도상가가 ‘지역글로벌 쇼핑몰’로 탈바꿈한다. 부평구는 올해 7억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부평지하도상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 ICT융합과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구축, 이벤트 및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화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유치와 BI 및 CI 개발, 무료 와이

파이 존 설치, 글로벌 결제시스템 구축, 상인 아카데미, 부평몰 데이 등에 4억2천만 원을 들었다. 구는 우선 통합 홈페이지 운영과 UCC공모전, 사물인터넷 이용 길찾기 시스템 개발, ‘부평모두몰’ 카카오톡 이모티콘 알림, 스토리텔링 포토존 설치 등 ICT를 활용해 부평지하도상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과 상가 기념품 개발, 중국어 문화센터 활성화, 점포 진열 개선사업, 우수 시장 박람회, 포장디자인 개발 등 자생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휴무일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점포 셔터에 대형 벽화를 제작해 집객효과를 높이고, 4개 상가별 출입구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 보완에도 나선다.

또한 부평문화대축제 기간 상가를 알리는 부스 설치, 다양한 홍보 활동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상가 내 문화 축제, 체험 행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광버스 등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부평역사 인근에 만들기로 했다.

부평지하도상가는 독특한 문화나 차별화된 관광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온라인 쇼핑 및 대형마트, 도심형 아울렛 등의 확산으로 특화된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구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중화권 관광객의 유입 증가와 불거리·출길거리 창출을 통한 공간 변화로 부평지하도상가를 국제 수준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부평지하도상가는 월드레코드 인증을 받은 세계 최고의 지하상가로 ‘10·20대의 만남의 장소’, ‘젊은층 쇼핑 공간’이란 한계를 뛰어 넘어 저렴하고 생동감 넘치는 문화쇼핑몰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25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서 올림푸스한국 의료트레이닝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올림푸스 의료트레이닝센터’ 첫삽 송도 의학기술 교류·교육 허브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올림푸스한국(주) 의료트레이닝센터(Olympus Korea Training & Education Center)’ 기공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36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송도국제도시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5천56.6㎡의 터에

자리할 올림푸스한국(주) 의료트레이닝센터는 총면적 약 6천611㎡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내년 6월 문을 연다. 트레이닝룸과 실험실, 대강당 등 교육시설과 함께 올림푸스 의료기기 서비스센터도 들어선다.

올림푸스한국(주)은 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인천경제청과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날 기공식에서 올림푸스한국(주) 오카다 나오키 대표는 “송도에 동지기를 틀 센터는 올림푸스그룹 내에서 중국 광저우(廣州)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로, 국내외 학회와 의료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의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 검단산단 일반공장 터 잔여 12필지 추첨공급

인천도시공사는 서구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일반공장용지 잔여 물량 12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할 용지는 2천39~1만700㎡ 규모로, 가격은 16억3천만 원에서 85억5천500만 원(공급단가 79만9천591원/㎡)

이다.

해당 부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350%로 높(중)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다음 달 11일까지 매입 신청 및 신청예약금을 받는다. 15일 추첨을 통해 21~22일 중 입주계약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전체 분양면적 152만㎡ 중 87%가 매각됐고, 이 중 공장부지는 93%가 분양이 마무리돼 32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 국제도시 흔치않은 중소형 단지

### ■ 인천 청라 모아미래도

의료·금융단지 가시화에  
인프라 등 도시 성숙단계



㈜모아종합건설이 26일부터 인천 청라국제도시 A1블록에서 ‘청라 모아미래도’ 아파트를 분양한다.

‘청라 모아미래도’는 지하 1층·지상 25층 5개 동, 총 418가구 규모다. 71㎡의 단일 주택형으로 ▶A타입 244가구 ▶B타입 50가구 ▶C타입 124가구로 구성된다. 71㎡ 단일 주택형으로 짜여져 최소 가치까지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청라에서는 85㎡ 초고 아파트들이 주로 공급돼서다.

분양가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급된다. 중소형 타입임에도 판상형 4베이 맞통풍 구조와 펜트리 및 드레스룸 등 공간 확보로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일부 가구는 바다 조망과 골프장 조망이 가능하다.

‘청라 모아미래도’는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수변공원과 70만㎡ 규모의 청라호수공원이 단지와 인접해 뛰어난 조경과 자연경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롯데마

트와 홈플러스, 수변상가인 커널웨이 등이 사업지에서 차량 5분 거리에 있다.

청라는 현재 전체 계획인구(9만 명) 중 약 76%에 달하는 주민들이 입주해 도시 성숙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아파트 전세가 급등으로 매매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청라에 가시화하고 있는 각종 개발 호재 역시 한몫하고 있다.

청라는 신세계복합쇼핑몰과 최첨단 의료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나금융타운은 현재 공사 중으로 앞으로 1만여 명 이상의 직접 고용 창출과 3천500여 명 이상

의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복원전나들목과 청라나들목, 제2외곽순환도로 북청라나들목, 남청라분기점(2017년 완공 예정),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이 인접해 있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과 KTX 검암 등 교통망이 좋다. 지하철 9호선이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개통(2018년 예정)되면 강남까지 1시간 이내로 서울과 접근이 더욱 편리해진다.

‘청라 모아미래도’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 793-21번지 일원에 지어져 26일 개관한다.

분양 문의: ☎1644-9448  
인천동 기자 airin@khihoilbo.co.kr

##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10곳 통합 ‘급물살’

항만공사·업체들 용역 합의  
4월초 업체 선정 최적인 마련

인천내항 부두운영회사 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와 인천내항 10개 부두운영회사(TOC)는 25일 내항 TOC 통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오는 4월 초까지 용역 업체를 선정해 내항 부두 운영의

최적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관련 용역은 내항 TOC를 하나의 단일 회사로 통합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기능별·화종별·부두별로 2~3개 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사는 통합 운영사에 대한 공사의 지분 참여 여부는 내항 경쟁력 확보, 민간 부두운영사와의 상생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은 2017년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이후 TOC와 노조, 정부와 공사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도출하면 내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두 운영체제 정비도 끝난다.

내항 TOC 통합은 내항의 화물물동량 감소, 부두운영사 간 출혈경쟁에 따른 운영난 가중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선결 과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배중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8th

장애인 문학 인재발굴 프로젝트  
 전국장애인 문학공모전

주최

주관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응모부문]

부문	내 용	주 제
운문	시: 3편이상 / 장시: 1편이상 / 동시: 3편이상	공향, 여행, 꿈 또는 자유주제
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편소설: A4용지 10매 내외(200자 원고지 70매 내외)</li> <li>● 동 화: A4용지 5매 내외(200자 원고지 25매 내외)</li> <li>● 수 필: A4용지 3매 내외(200자 원고지 15매 내외)</li> </ul> ※ A4 글자크기 11포인트, 글자체 신명조, 자간 1.0으로 작성	

[응모자격] 등록 장애인 ※ 제한: 타 공모전 또는 역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

[접수기간] 2016년 2월 15일(월) ~ 2016년 4월 8일(금)

[접수방법 및 접수처]  
우 편 :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곡로10(신흥동3가 30-17)  
전자우편 : jgwelfare2@naver.com / 팩스 : 032-891-0533

[제출서류]  
작품, 신청서 1부(복지관 홈페이지www.jgwelfare.or.kr 공지사항 참조),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발 표] 2016년 4월 14일(목) 9:00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시상식] 2016년 4월 19일(화) 10:00 (하버파크호텔)

[시상내역]

-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금상 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상 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 3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가작 5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장려상 5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지명:서울, 경기, 인천 제외) 거주 수상자는 1박2일 간의 호텔 숙박 및 식사, 인천 투어 진행

[작품 집발간]  
● 수상 작품은 「해누리문학 vol.8」 에 게재됩니다.  
● 수상작품은 기호일보를 통해 인터넷 신문으로 작품 연재  
● 수상자는 문인협회 작가와 1:1 멘토링 지원

[문 의] 가족문화지원팀 032-880-2430 ~ 2

동네방네  
부천시여성회관 특강 감사 공모

부천시여성회관은 '여성인재아카데미' 특강 강사를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여성 인재 양성과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된 모집 분야는 경력단절 여성 대상 유망 신규 직종 분야, 직장인 대상 자기계발 및 직업능력 향상 분야, 자격증 취득, 문화예술전문가 양성 등 총 10개 분야다. 접수 방법은 부천시여성회관 홈페이지(http://woman.bcf.or.kr)에서 공모 양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이메일(womanbcf@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lbo.co.kr

이천시, 장난감 수리 사업 펼쳐

이천시가 장난감 재사용을 통해 자원 활용 기회를 늘리고 교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고쳐 주기 사업을 펼쳐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는 이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백소영)와 손잡고 고장 난 장난감을 고쳐 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고장 난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 고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정 내에 고장 나서 방치되고 있는 장난감이나 전원은 들어오면서 소리·불빛 작동이 안 되는 장난감 등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ohoilbo.co.kr

화성, 과수 화상병 방제약 공급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농가에 방제약을 공급한다. 25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사전 신청한 총 230여 농가에 3월 초부터 무료로 약제를 배포할 예정이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 39속 180여 종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조직을 검게 마르게 하고 빠른 시일 내 나무를 고사시킨다.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돼 발견 즉시 해당 과수원은 폐원되고, 향후 5년간 동일 과종의 식재가 금지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o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ohoilbo.co.kr

하남시 '찾아가는 왕실태교' 운영

하남시는 국립고궁박물관과 함께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임신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왕실태교'를 운영한다. '왕실태교 교실'은 오는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배려층(미혼모·다문화·저소득층) 임신부가 우선 신청 대상이다. 교육은 국립고궁박물관 전문강사와의 만들기 체험, 조선왕실의 출산문화 알아보기, 비단표지 태교일기책 만들기, 아이에게 일할 배냇저고리·턱받이·버선 만들기, 임신·수유·영양에 필요한 영양관리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ohoilbo.co.kr

성남 판교생태학습원 정원사 교육

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배우면서 자기계발 활동을 할 기회가 성남시 판교생태학습원에 마련된다. 성남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3시까지 정원사로 활동할 시민 14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는 3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21회 과정의 기초교육을 받아 식물의 구조와 형태, 생육, 재배관리 방법 등을 알게 된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판교생태학습원 정원사실에서 진행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ohoilbo.co.kr

# 도, 농촌 어르신 '극단적 선택' 막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자살예방협회와 읍동자살예방 협력 한곳에 모아 자물쇠로 채워 설치... 92개 마을 2862개 지원

경기도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손잡고 농촌지역 노인들의 읍동자살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남경필 지사와 유석정 생명보

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25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농촌지역 노인들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맺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을 희망한 도내 14개 시·군 92개 마을에 2천862개의 보관함을 지원하게 된다.

도가 사업 총괄을 맡게 되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사업비 7억 원을 부담한다.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관함 보급을 맡는다. 일선 보건소와 지역 자살예방

센터 직원들은 농약보관함이 설치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활용 방법을 알려 줄 예정이다. 도는 마을 이장 등을 생명지킴이로 임명해 보관함 설치 가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마을 주민에게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약보관함 외

에 마을별로 1개씩 폐농약용기수거함 87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5개 마을은 이미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총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약을 한곳에 보관하고 자물쇠로 채워 놓으면 열쇠를 찾는 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 총동적

행동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도내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65.13명에 달한다. 이는 평균 자살률 25.7명보다 2.3배 높은 수치다. 또 같은 해 65세 이상 노인 7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중 84명(11%)이 농약을 이용했다. 김나훔 기자 hero43k@kohoilbo.co.kr



가평 명지산서 작목반원들이 고로쇠수액을 채취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포항 판매 제품.

## 물맑은 가평 기운 고로쇠 가득

수액 1.5L·1.8L 등 단위판매 작목반 6000여 그루서 채취 올해 소득액은 8억 원 전망

우수(雨水)가 지나면서 아깝없이 주는 고로쇠나무의 봄기운이 우리 곁에 다가왔다. 24일부터 채취가 시작돼 25일부터 판매되는 가평산 고로쇠는 1.8L 9개 한 상자에 5만 5천 원, 1.5L 9개 한 상자에 5만 원에 판매된다. 핵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있다. 1.8L 3개 소형 한 상자에 2만 1천 원, 1.5L 3개 든 고로쇠는 1만 8천 원에 판매된다.

삼성항과 상쾌함이 가득한 녹색 보물창고인 160여ha의 산림에서 자생하는 6천여 그루의 고로쇠나무에서 명지·화악·연인·축령 등 17개 작목반이 채취하는 고로쇠 수액은 올해 36만L을 받아 8억여 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평산 고로쇠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검증기관인 BSI(영국 표준협회)로부터 지자체 최초로 초저탄소지역으로 검증받은 가평에서 채취돼 자연의 순수함과 청정함, 주민의 정성이 녹아 있다. 문의:고로쇠작목반 연합회 ☎031-582-1552 가평=염건섭 기자 gsuim@kohoilbo.co.kr

## 시민 편에 서서 '정책 분석하는 눈' 키워야

인터뷰 제7대 문영근 오산시의회 의장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시민 의식에 맞춰 구석구석 찾아가는 맞춤형 의정 활동, 제7대 문영근 오산시의회의장이 꿈꾸는 시의회의 모습이다.

-제7대 오산시의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전반기 오산시의회를 평가하자면. ▶제7대 시의회의 목표는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전반기 의정활동은 수시 아카데미 개최로 시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매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을 피부로 느끼고자 노력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 공유하는 의정활동을 일상화함으로써 시의원들 간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는 데 만족한다.

다만, 지난해 2016년 세출예산안 확정 시 의원 간의 소통 부재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오산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당면과제에 대해 매일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원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집행부와 토의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 확인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30만 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심 교통체계 개선 문제, 오산천 수질관리에 따른 용인시와 화성시의 역할 문제, 최고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발굴, 오미정대 활성화 방안,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증가, 독산성 복원, 평화공원 조성 등 모든 정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우선적으로

매월 의원 아카데미 열고 시장현장 해결 방안 모색 사업 견인·견제력도 중요 세교2지구로 경쟁력 결정

쟁거 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7대 시의회의 과제와 의장으로서 개인적인 과제는. ▶제7대 시의회의 과제는 정책 분석 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산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견인·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정책,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편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느끼고 체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는 오산시의회가 좀 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직접 발로 뛰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오산은 선사시대부터 살



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 이유는 금암동에 있는 고인돌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오산이 선사시대부터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이니 만큼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다.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오산시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 세교2지구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도시경쟁력 결정될 것이다. 오산시가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충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를 대표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 드린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ohoilbo.co.kr

## 제암리에 남겨진 독립의 외침 노래·퀴즈로 역사 되짚어볼까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캠프 3·1운동 기념 유적지 탐방 초등생 총 50명 참여 예정

화성시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은 28일부터 1박 2일간 지역의 3·1운동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는 '제암리 3·1운동 기념캠프'를 운영한다. 25일 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총 50명이 참여해 3·1운동 바로 알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탐방, 안성 3·1운동기념관 탐방, 3·1운동 퀴즈, 삼일절 노래대회, 역사신문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o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ohoilbo.co.kr

각 프로그램마다 3·1운동과 관련한 조별 미션 수행으로 참가자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배우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적 정체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의 주요 탐방 현장 배경이 된 '제암리 학살사건'은 3·1운동을 펼쳤던 주민들이 일본군의 보복으로 1919년 4월 15일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o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ohoilbo.co.kr

## 영어책 읽어주는 의왕 글로벌도서관 '인기'

6년 여간 이용률 꾸준히 증가 연령·수준별 전문강좌 눈길 전자책·DVD 등 콘텐츠 다채

의왕시 글로벌도서관이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운영으로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오전동 어린이랜드 내 글로벌도서관은 경기도 최초의 영어 전문 공공도서관으로,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교육 정보를 제공하면서 2010년 개관 이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만2천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레벨에 따라 분류된 영어도서 3만7천여 권을 통해 이용자가 독자수준 테스트를 받은 후 본인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영어도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주 화·



목요일 전자책과 교육DVD 등 다양한 영어책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도서관에서는 영어독서지도사 양성과정, 우리 아이 영어책 골라주기, 영어동화 스토리텔링, 경기외고 책 읽어주기 활동 등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연령별 전문 강좌를 개설·운영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글로벌도서관 ☎031-345-3691~6, www.uwlib.or.kr/globallibrary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ohoilbo.co.kr

## 포천시 맛앤뎃 음식점 신규 지정 4월 29일까지 신청 받아

"포천 맛앤뎃 음식점 신청하세요!" 포천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신규 포천 맛앤뎃 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는다. 맛앤뎃 음식점은 지난 2012년 최초 57곳을 선정해 현재 총 67곳이 지정돼 있으며, 2016년도에는 3곳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영업하고 한정식, 궁중, 토속음식 등을 취급하면서 맛, 위생, 서비스, 영업

환경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이면 신청 가능하다.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지정명령 등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모범음식점 선정 후 1년 이내 취소된 곳은 제외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식품 분야 외부 전문가가 맛, 위생, 서비스, 영업환경 등을 2차 현장 심사에 최종 선정한다. 문의:☎031-538-3607 포천=백득진 기자 pdj3015@kohoilbo.co.kr

## 이천 2016년 입시 성과 '갈뚝'

SKY·KAIST·사관학교 포함 국내 10위권 대 134명 합격 고교 기숙사 등 시정책 결실

이천시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입시 결과 서울대 5명, 고려대 12

명, 연세대 8명 및 KAIST, 사관학교 등 주요 대학에 53명이 합격했다. 이는 지난해 주요 대학 합격자 45명보다 8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소위 국내 10위권 대학에도 134명이 합격, 불과 수년 전 20명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갈뚝할 만한 성과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2008년부터 명문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지원했고,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혼연일체로 노력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교육 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2008년 '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중기·단기별 시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이천영어마을 조성, 교원

아파트와 도서관 건립,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우수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시민장학회 장학금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 1인당 3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이치니언 장학제도'를 시행해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ohoilbo.co.kr

# 가평군, '청정축산'으로 FTA 시대 준비

### 해의 전염병 예방에 36억 원 투입... 지속가능·안전에 무게 가축분뇨 자원화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경영 안정 도모

FTA 시대를 맞아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방역·위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축산 지원시책이 추진된다. <사진> 가평군은 올해 36억1천여만 원을 들여 해외 악성 전염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 개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 축산 지원과 선진 방역 및 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군의 축산지원시책은 식량안보의 중요한 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청정축산을 통

한 안전·안심 축산물 생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축산 지원에 6억6천만 원, 주요 가축 경쟁력 강화에 11억 원, 가축 방역에 1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업의 항구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미, 한·EU, 한·호주 FTA 등 잇따른 대외 개방으로 국내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육성하고 선진적이고 선제적인 가축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극

복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정된 경영 기반을 이루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유·해충구제, 축사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사회와 축산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마련하고 미생물 생균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해 환경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소비 축산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수 축산물을 초·중·고교에 공급하고 미생물을 지원해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 축산업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축산체질을 강화해 안정된 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평축협과 축산단체, 축산농가와의 공조와 현장중심 행정을 통해 청정축산 환경을 뿌리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원건섭 기자 gsuim@khihoilbo.co.kr

### 봄맞이 슬로라이프 즐겨요 자연재료로 만들기 체험

####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 운영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가 따스한 봄을 맞아 다양한 슬로라이프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김치명인 이하연 씨와 함께 매일 다양한 김치를 만드는 '우리집 계절김치' 프로그램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려 봄 입맛을 돋울 예정이다. 3월에는 전라도식 배추김치, 4월은 전통 백김치, 5월 오이소박이 등으로 명인의 요리 비법을 배우고 함께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철 딸기와 건강한 재료를 이용한 '딸기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도 매 주말 진행되며, '아이싱 캐릭터 쿠키 체험'과 '아기자기나만의 만들기 체험' 등은 상시 이용 가능하다.

사전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organicmuseum.or.kr) 혹은 전화(☎031-560-14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기농테마파크 관계자는 "전문가와 함께해서 더 맛있고, 직접 해 보면서 재미있고, 생생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더 건강한 일석 삼조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조현재 기자 chj@khihoilbo.co.kr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김선교 양평군수가 남경필 지사에게 현안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제공>

## "양평 자연보전권역 불합리규제 여전"

### 김선교 군수, 경기도청 방문 남 지사 만나 현안 해결 건의 종합운동장 교부금 요청도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우선 행정구역 위주로 불합리하게 지정돼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같은 섬강을 인접하고 있는 양동면과 문막읍의 경우를 사례로 들며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양동면의 경우에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또 11만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건립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는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국비 30% 군비 70%)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교부금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도시사 공약사항이자 관·군 협력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군인아파트(양평을 창대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해서도 관사 7개 동 214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군인 복지 실현은 물론 주변 지역으로의 공급 확대가 용이한 만큼 2016년 도시가스 의

무적투자비를 충당아파트 공급 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김선교 군수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행복살갑도시 양평" 브랜드 정착을 통해 '세계 속의 경기도', 아침이 있는 '굿모닝 경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점 규제에 의한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안 해결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실감 지수를 높이기 위한 건의인 만큼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각종 중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평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에서도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양평과 협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에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 아동범죄 발 못 붙인다

### 부천오정서, 학교 등 14곳 보호구역 지정 운영키로

부천오정경찰서는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선정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정서 관계자는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포함된다. 지정된 구역에는 CCTV 추가 설치 및 경찰관을 비롯한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가 추진된다"며 "현재 부천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등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14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정서는 통학로 주변 및 인근 공원(아동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1부서 1공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등 아동안전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동네방네

#### 화성시, 사회적 경제 강사 양성

화성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가르칠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모집인원은 40명으로 사회적 경제를 알리고 실천할 의지가 있는 화성시민이면 참여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3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 신청(www.eomms@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무료로 3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뤄지며,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열릴 예정이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백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 광주, 부동산업소 자율점검 시행

광주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방문 지도·점검 방식은 시에 등록된 641개 중개사무소(2016년 1월 31일 기준) 대비 담당공무원 부족으로 민원 발생 중개업소 위주의 단속에 따른 형평성 문제, 현장방문 지도·점검 시 영업 지장에 따른 불만 등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사이버 자율점검을 위한 전산 구축을 2월 말 마무리하고 3월 시험운영을 거쳐 4월 말 16~25일(10일간)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hihoilbo.co.kr

### 연천군, 지적재조사 사업 설명회

연천군은 지난 24일 미산면 동이리 마을회관에서 면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평판과 대나무 자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 시책사업이다.

이번 설명회는 '미산 동이지구'의 사업지구 선정 배경, 추진 방향, 기대효과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 용암 하천 한탄·임진강 지질교육의 메카 예약

### 연천군, 국가지질공원 기념 전문가·공무원 참석 팸투어

연천군은 국내외적으로 보기 드문 용암 하천인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지난 23~24일 양일간 전문가 및 전국 지질공원 공무원, 해설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 개최 및 팸투어를 실시했다.

24일 팸투어에서는 연천 제일 지질명소인 재인폭포를 시작으로 고문리의 백리대, 궁평리 좌상 바위, 아우라지 베개용암, 신당리 키푸카를, 오후에는 은대리 습곡 구조와 판상절리, 당포성, 임진강

변 남계리 주상절리 등을 각각 살펴봤다. 이 자리에 참여한 각 지자체 공무원들은 "연천의 지질공원은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전 지질시대의 다양한 암석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질체험학습장이 도처에 널려 있어 지질교육 및 체험의 메카가 될 것 같다"며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탄강과 임진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하천으로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이 절경을 이루며, 기암절벽과 더불어 지질학적 특징들이 잘 보존돼 지난해 12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 하수처리장 정수기동 추진... 한강청, 노후시설 선제 지원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부터 비정상 가동이 우려되는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365일 정상가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비정상 가동 우려시설은 ▶하수처리장 시설 용량을 초과해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하천수 등이 하수관으로 유입돼 낮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시설 ▶시설이 노후화되는 등 문제로 수질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시설로, 총 18개 시설이 대상이다.

한강청은 이들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행정·기술·예산 등을 최대한 지원하는 등 하수처리장의 빠른 정상화에 모든 수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학계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하수처리장 케어팀'을 구성해 반복적 기술진단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사업성이 높은 사업은 비용을 지원해 빠른 정상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www.softfind.co.kr

##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컨설팅 L2C가 도와드리겠습니다!

L2C는 최고의 소프트웨어 컨설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입니다.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상담
-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 합리적인 중소기업용 관리 솔루션

CyberLink, Microsoft, Adobe, AUTODESK, AhnLab, höncom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11-15 301호(정자동, 봉우빌딩)  
TEL.031-717-0961 FAX.031-717-6103 MAIL.sales@l2c.co.kr

BlessLove BNL www.blesslove.co.kr

##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기도하기 힘들시죠? 느릅나무 기도의자

디자인 특허 제30-0667934호

느릅나무 기도의자는 인체의 굴곡을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장시간 앉아있을 수 있으며, 앉는 부분의 굴곡진 홈으로 인해 종아리의 놀림 통증을 최소화, 아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명상용 취미용 지체보강용 집중력 향상용 인테리어

제조/판매처 : 비앤엘코리아 | 고객센터 : 070-8870-1727 | 홈페이지 : www.blesslove.co.kr

열린광장

최동례

새해 금연 계획, 실천하고 계신가요?



한국부인회 인천지부장

건강에 미치는 흡연의 해악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는 4천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암의 발생 및 위험요인의 30~40%를 차지하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담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가 다양한 연구 결과에 의해 과학적 사실로 확립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수진자료 분석을 통해 20갑년 이상 흡연자의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의 높은 유병률 확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담배소송은 다음 달 4일 7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6차 변론까지의 주요 쟁점이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였다면 7차 변론은 '흡연과 니코틴 중독'에 대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논의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4년)에서 우리나라 현재 흡연율은 성인 남성의 경우 43.1%, 성인 여성의 경우 5.7%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국 보건복지부 자료(2008년)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로 금연한 경우는 불과 4%라고 합니다.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올해 2월에는 이러한 흡연의 해악을 알리고 금

연치료를 장려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와 한국부인회 인천지부 회원들이 함께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 확대를 위해 '금연치료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라는 현수막을 부평구 갈산역 주변에 설치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담은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지역주민에게 직접 나눠 주며 현장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등록된 금연 희망자에게 1년에 2차수까지 전문적인 금연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등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및 인센티브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금연 참여자에게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100%를

환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연치료 상담료 및 의약품의 80%를 지원하고, 금연보조제는 별도 정한 상한액 이내로 지원한다고 하니 금연을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한국부인회 인천지부는 공단과 함께 시민의 웰라게가 잦은 곳, 역사, 대형 마트 앞 등을 찾아 금연을 위한 다양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흡연은 우리 자신과 주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치료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함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 벌써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앞두고 꾸준한 금연과 건강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혜안

조카의 유래

우리나라 가계도 중 형제의 아들 딸을 일컫는 호칭인 조카라는 말의 어원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사람 개자추(介子推)에게서 시작된다.

개자추는 진나라 문공이 숨어 지낼 때 그에게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면서 받들던 사람이었다. 그 뒤 서기전 637년 문공이 왕위에 오르게 됐다.

당시 중이는 공신들에게 상을 주면서 개자추를 빼뜨리고 말았다. 이에 비판한 개자추는 어머니와 함께 금상의 산속에 들어가 은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문공은 개자추를 불러들이려 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문공은 그를 나오게 하려고 산에 불을 질렀는데 개자추는 어머니를 업은 채 나무 한 그루를 끌어안고 타 죽고 말았다.

문공은 비탄에 빠져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개자추가 끌어안고 죽은 나무를 베어 그것으로 나막신을 만들어 신고는 "족하(足下) 죽하!"하고 애달프게 불렀다. 문공 자신의 사람됨이 개자추의 발 아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생겨난 족하라는 호칭은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천자족하', '대왕족하' 등 임금을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다가 이후에는 임금의 발 아래서

일을 보는 사관(史官)을 부르는 호칭이 됐다. 그러던 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같은 나이 또래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형제자매가 낳은 아들딸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이는데, 죽하가 조카로 발음된 것으로 본다.

한식(寒食)이라는 말의 유래도 불에 타 죽은 개자추를 애도하기 위해 그날 하루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주인을 섬기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개자추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그를 챙기려 산에 불을 지르기까지 한 문공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양주=전정훈 기자>

씨앗 '한 톨'의 경제학

전성군 알-러뷰 농촌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경제학박사

옥수수 씨앗 '한 톨'은 기적의 작물이다. 알고 보면 사람이 옥수수를 키운 게 아니라 옥수수가 사람을 키웠기 때문이다. 옥수수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 놓으면 포도포동 맛갈스럽다.

씨앗 하나의 진출함과 씨앗 한 톨의 폭발성은 작지만 큰 희망을 주는 경제학이다. 특히 백두대간부터 제주도 해안까지 어떤 땅, 어떤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효자 작물이다.

씨앗 한 톨로 한 말을 수확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고, 힘든 노동 없이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면 된다. 진정 작지만 경제적인 씨앗이다. 씨앗 한 톨을 심어서 세롭게 거두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한다. 밭술에 찌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나는 옥수수는 바로 강냉이라고 하는 작물이 사람에게 베푸는 경제적인 선물이다.

이 옥수수는 무엇일까. 옥수수는 무엇인가에 우리한테 밥이 되고, 우리 목숨을 연명해 주며, 이 땅에 밭을 이뤘던 열매를 맺어 충분한 먹거리를 베푸는 경제적인 선물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옥수수 두 쪽을 먹으면서 배가 부른다. 강냉이를 먹는 동안에는 누구나 평화롭고 평등하며 포근하다. 심지어 마야인들은

옥수수는 신이 죽어 환생한 신성한 작물로 생각하고, 사람도 옥수수 반죽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 믿었다.

옥수수는 기원전 4천 년경 중앙아메리카에서 시작됐다. 옥수수의 시작과 더불어 인류의 정착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특히 마야문명은 옥수수와 대단한 연관이 있다. 마야는 기원전 2천 년경 카리브해와 북태평양 해안가의 옥수수 정착 농업과 함께 시작해 이후 농사 지을 땅과 물을 찾아 내륙으로 나아가던 문명이다.

때문에 마야에서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 자원을 넘어선다. 이는 마야의 건국신화에도 나타난다. 마야의 건국신화 '보블 부'에는 마야의 천지창조, 쌍둥이 형제의 모험, 인류 출현의 스토리 등이 담겨 있는데 그 중심에 옥수수가 있다. 옥수수는 마야인들의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첩은 3월 5일 개로 이 무렵에 땅속의 벌레들이 얼음이 풀리고 우레가 울며비가 오는데 놀라 겨울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린다고 한다. 바야흐로 농촌의 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씨 뿌리는 수고 없으면 결실의 가을에 거둘 것이 없듯 경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 뿌려야 풍요로운 수확을 맞이할 수 있다.

변화의 시대에 농촌은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얘기는 씨앗의 소중함을 재삼 일깨워 준다.

한 남자가 꿈속에서 시장에 갔다. 새로 문을 연 듯한 가게로 들어갔는데, 가

게 주인은 다른 아닌 하얀 날개를 단 천사였다. 그 남자가 이 가게엔 무엇을 파는지 묻자 천사가 대답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팝니다." 그 대답에 너무 놀란 그 남자는 생각 끝에 인간이 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결심하고 말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천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이 가게는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단지 씨앗만을 팔 뿐이죠."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 똑같은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신은 인간에게 공평하다고 본다. 어느 누구에게도 씨앗은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느냐, 숯으로 만드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또한 인생은 다이아몬드라는 아름다움을 통째로 선물하지 않는다고 본다. 단지 가꾸는 사람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숯이 될 수도 있는 씨앗을 선물할 뿐이다.

이 세상에 자연법칙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물론 자제히 모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연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현상은 분명하고 정확한 원인의 결과라는 경제법칙을 안다. 그리고 그 법칙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 씨앗 '한 톨'의 경제학이 최고의 논밭을 만든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등록번호 인민기1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iho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상식한토막

사드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또 사드의 한 번도 배치를 놓고 중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뜻한다. 적국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동맹국 및 해외 주둔 자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인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Theater Missile Defense)에서 고층 방어에 해당된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100km 이상 최대 150km까지의 고도인 대기권 바깥으로 올라갔을 때 사드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 충돌로 요격하는 것을 말한다. 사드의 1개 포대는 X밴드 레이더와 6개 발사대, 발사대당 8개의 요격미사일, 화력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008년부터 미 육군에 실전 배치된 미국의 전략무기 중 하나이다. <京>

Advertisement for (유)와이즈에너지월드 (Wise Energy World) featuring solar panels, wind turbines, and text about solar energy solu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금요논단 권덕우



인천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인천역과 송도역 간 표준궤간을 가진 최신식 복선전철이 개통된다. 이로써 지난 2012년 6월 개통된 송도~오이도역 구간과 연결돼 인천에서 노선은 일관된 선이다. 그러나 옛 수인선의 부활이라고는 하지만 굳이 왜 '수인선'이라고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오랜 관행으로 통칭돼 온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 안타까움은 남았다.

일제강점기 수인선은 1935년 9월 착공해서 1937년 8월 6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는데, 인천의 인천항역(남인천역, 수인역)과 경기도 수원 사이에 국유가 아닌 사설(私設)로 부설됐던 '협궤'철도였다. 철도의 표준궤간은 로마시대 마차(兵車) 수레바퀴의 너비로, 수레바퀴가 오렌 세월 길을 달리다 보면 바퀴 자국이 자연스럽게 흠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통일돼 1천4

35mm의 국제표준 철도궤간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광궤와 협궤로 분류됐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의 궤간은 특별한 원칙이 필요치 않았다. 일본 군부는 경인철도와 추후 점령할 만주지방 철도와 연결을 위해서 표준궤간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지형과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궤간의 넓이를 달리할 수도 있었다. 수인선은 '사설철도'였기 때문에 건설비나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되는 협궤궤도를 선택했던 것이며, 따라서 표준궤간에 반도 못 미치는 762mm로 결정됐고, 기관차역시 소형의 '꼬마열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수인선은 경기도 내륙의 마곡을 인천으로 수송하고, 인천으로부터는 생활물자를 보낼 생각으로 부설했는데 결국 인천항에 결집한 쌀은 일본 수출에 용이하다는 계산이 짝게 깔려 있었다. 거기에 더해 남동염전의 남쪽 해안을 매립하고 소래에 철교를 놓음으로써 처음부터 남동·소래·군자염전의 소금을 수송할 목적으로 개통했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

타임머신 수인선

존에 있던 월미도유원지를 국방상의 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그 대체 수단으로 육원동 해변에 송도유원지를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3.3㎡에 5천 하던 이 일대의 땅이 하루아침에 5~10월까지 오르는 등 투기가 판을 치기도 했다.

수인선 개통에 앞서 1936년 10월 일제는 인천부의 행정구역확장하면서 부천군 문학면의 일부였던 육원리를 인천부에 편입시키고 이를까지 송도정(松島町)이라는 왜식(倭式)으로 바꿨다. 이 시기는 만주사변과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가 팽배하고 있었던 때로, 인천 곳곳에 새롭게 생겨나는 지명에는 '시대상'을 반영하듯 일제 군함의 이름이 명명되고 있었다. '송도' 역시 당시 군함이었던 '송도함'이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역명에 옛 수인선의 역명이었던 '송도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송도 지명의 개명이라는 논란을 뒤로하더라도 '지리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송도로 가실 분은 송도역에서 내리

지 말고 '원인재역에서 환승'해야 송도(신도시)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필요한 실정이다.

수인선은 비록 일제의 수탈을 목적으로 개설됐다고는 하나,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화유산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다 할 대중교통시설이 없던 시절 서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했고, 일반 열차보다 폭이 훨씬 적은 '협궤'라는 점 때문에 꼬마열차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다. 협궤 열차를 타고 소래를 찾았던 것도 시대의 한 풍속이었다.

1990년대 중반 수인선의 기능과 경제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철 협궤열차 노선을 폐지하고 새롭게 전철 광궤화 노선을 부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제야 개통되는 인천의 새 철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수도권 인적 교류의 증대를 통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 교통편의 시설의 증대로서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고 추억을 남기는 명소가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난폭운전도 형사처벌된다

—독자투고—

올바른 112신고 방법 숙지를



이영재 <화성서부경찰서 양감파출소 경위>

이전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보복운전 이외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이다.

이 같은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입건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6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우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운전 시 안전띠를 매면 사망사고 위험이 12배는 감소하고,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 19% 감소하며, 방향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율 48%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의 통계에서 산출된 교통안전정책 운동이다)을 실천해 운전자 간에 무언의 약속을 전하며 소통운전한다면 난폭운전도 보복운전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센터'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빠르게 신고 접수받아 처리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들은 보복운전 등 방지를 위해 '안매켜소 운동'을 생활화해 건전한 안전운전 소통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신주영 <안양반안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장>

올바른 112신고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도 같은 강력사건부터 교통사고, 분실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신고 과정에서 전화를 하면서 사소한 일일지라도 매우 흥분하고 당황해 정작 중요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그냥 빨리와 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 속에서 모든 112신고를 3~5분 내에 신속히 출동하기란 쉽지 않다. 신고 내용에 따라 긴급, 단순, 상담 사건으로 분류해야만 정말 위급한 신고에 적절히 출동할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숙지해야 하겠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말하라. 자신의 집이나 주택 골목길에 있다면 도로명주소를 알려 주면 된다.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가까이 보이는 가게 간판의 상호를 알려 주면 좋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명과 진행 방향을, 농어촌·산악 등 특정 지형지물이 없는 곳에서는 전신주 관리번호, 국가지점번호를 알려 주면 된다.

둘째, 경찰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게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려 주면 경찰관 출동인원과 대응 방법, 119구급차 출동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112신고 전에 휴대전화 GPS를 켜야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신고자가 범인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 통화가 어려울 때는 112문자신고, 112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경찰행정 업무, 고소 및 범죄피해 상담 문의는 182번으로 해야 한다. 당신의 허위·장난신고는 내 가족, 내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인천시 경쟁력 강화 제고 방안

'빅데이터로 본 인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최근 인천시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 가치 재창조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24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빅데이터로 본 인천시정'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만들어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을 언급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49.1%)이 '부정'(27.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 제고에 걸림돌은 수없이 많다. 인천은 지금 국내 모든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들 한다. 심지어는 세계가 부러운 눈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한다. 인천시가 틀만 내면 내세우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면 그렇다.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일컬어지는 인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송도국제도시,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되고,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타운으로 개발

되는 등 인천의 앞날은 장밋빛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과 달리 향후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에 의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은 별로 높지 않은 데 이어 24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빅데이터로 본 인천시정'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만들어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인천을 언급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천을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49.1%)이 '부정'(27.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 제고에 걸림돌은 수없이 많다. 인천은 지금 국내 모든 도시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들 한다. 심지어는 세계가 부러운 눈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까지 한다. 인천시가 틀만 내면 내세우는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미래의 청사진을 보면 그렇다.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일컬어지는 인천공항과 항만, 산업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송도국제도시,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조성되고, 청라지구는 국제금융업무타운으로 개발

인천공항·항만 수사 전담팀 신설 시급

인천공항과 항만은 국제공항이고 국제 여객터미널이다. 이로 인해 하늘길과 바닷길이 세계로 뻗어 있다. 각국의 시민들이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입국하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잇따라 밀입국과 테러 관련 범죄가 발생하자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가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다.

거기에 국제 마약사범도 줄지 않고 있다. 테러와 마약은 사전에 인지, 차단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테러와 마약에 있어 사후 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초동단계에서의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은 이 때문이다. 현재 공항과 항만에 인천지검의 분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이 태부족하다 한다. 게다가 마약수사관들만 나가 있어 여타 사건을 담당할 '전담검사'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각국의 언어와 풍습도 다르다.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담당수사관이 해당 국가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을 경

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공항과 항만 관련 전담수사 인력의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이 때문이라 하겠다.

사회는 날로 다양화되고 국제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어 오려다. 인천의 경우 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인해 여타 지자체에 비해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지역이다. 사업장도 밀집돼 있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인 범죄 수사 관련, 수사인력의 확충은 공정한 사건 처리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공항분실에는 10명의 마약과 수사관, 항만분실에는 마약과 수사관 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다. 공항과 항만에는 또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국가정보원 등 기관이 상주하며 밀입국사범, 밀수, 외환거래, 대공수사 및 기술유출 등의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각 기관 간의 업무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공항과 항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검사를 포함한 수사 전담팀의 신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나래이엔지 (주)나래이엔지**

**남동국가산업단지 소방시설관리업 1호 등록업체!**

070.7452.77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2 (논현동 444-5 53B 5L) Tel\_032)859.5001 Fax\_032)859.5909 www.nareaing.com

**제2013-1호 소방시설전문관리업등록기관**

**산업단지전문 소방점검대행**

- 소방시설안전관리(대행)
- 소방시설점검(종합, 작동)
- 소방시설유지보수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의 오작동에 대한 신속기동반 운영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실시
- 기술전문인력 배치로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실시 지도
- 각종 민원으로 인한 소방서와의 업무처리
- 점검중 발견된 경미한 불량에 대한 보수실시
-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선임 대행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6 columns (KBS 1, KBS 2, MBC, SBS, OBS, EBS) and multiple rows of program listings for the day.

Table with 6 columns (KBS 1, KBS 2, MBC, SBS, OBS, EBS) and multiple rows of program listings, including a large '27 토' graphic.

Table with 6 columns (KBS 1, KBS 2, MBC, SBS, OBS, EBS) and multiple rows of program listings.

TV 하이라이트

전쟁이 빚어낸 슬픈 사랑 이야기

★ 고전영화극장 '해바라기' <EBS 26일 (금) 오후 10시45분> 2차 세계대전 무렵, 나폴리 시골에 살던 지오바나는 밀라노에서 온 안토니오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만 남편 안토니오는 곧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지오바나가 받은 것은 한장의 전사 통지서, 그녀는 친신만고 끝에 남편을 찾아내지만 그는 부대에서 낙오되어 해마다 과거의 기억을 잃었고, 소련 여인 마사를 만나 두 딸을 둔 아버지로 행복



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나이는 공장 일꾼 에토와 결혼한다. 아들도 한 명 낳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지오바나에게 기억을 되찾은 안토니오가 다시 나타나자, 그녀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삶이 롤러코스터... 워킹맘은 괴로워

★ OBS시네마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OBS 27일(토) 오후 1시50분> 1년 365일 매일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케이트. 능력 있는 펀드 매니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어지는 상사의 야근 요청은 물론, 남편의 갖가지 요청에도 OK를 외친다. 24시간도 못가랄 정도로 치열한 일상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정신 없는 나날의 연속.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뉴욕 본사 글로벌 프로젝트가 주어진다. 케이트는 항상 남자 동료에게 돌아갔던 큰 기회가 꿈만 같다. 본사에서 만난 훈



훈한 비주얼과 품목 매너를 갖춘 무결점 클라이언트 책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며 호의를 베풀기까지. 하지만, 남편의 사업 확장 과 동시에 찾아온 큰 프로젝트로 인해 출장이 잦아지고 가족들의 불만은 쌓여만 간다.



책받침 추억 속 7080 스타의 근황 공개

★ 시사교양 '여유만만' <K2TV 26일(금) 오전 9시40분> 7080 그때 그 시절, 소녀들의 우상이었던 책받침 스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원조 트로이카 여배우부터 80년대 하이틴 스타까지 주부들이 가장 보고 싶은 여배우 순위 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로 알려진 원미경이 원조 섹시스타였다?! 다시 보고 싶은 여배우 원미경의 데뷔부터 결혼, 그리고 근황 소식까지 그 뒷이야기를 파헤쳐 본다.



토끼시간 만난 라동이 '바른생활 모드'

★ 연예오락 '오 마이 베이비' <SBS 27일(토) 오후 4시50분> 정체 불명의 토끼인간이 라동이네를 방문했다. 토끼가 라동에게 생활 습관에 대해 물어보자, 라동이는 스스로 장난감을 정리하고, 밥을 먹을때는 앉아서 먹는 등 토끼에게 나쁜 습관은 보여주지 않기 시작했다.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토끼가 쏟은 물을 휴지로 닦아주며 엄마, 아빠와 있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주변을 흐트러게 만들었다.

다가와현 경제 살린 '우동 한 그릇'

★ 시사교양 '글로벌정보 세계인' <K1TV 27일(토) 오후 10시30분> 일본의 다가와 현, 이곳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특별한 아이템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동! 우리도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누키 우동', 사누키 우동의 사누키가 바로 '다가와 현'의 옛 지명이다. 현재 다가와 현은 현 이름을 '우동 현'으로 바꾸자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우동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쓰나미에 살아남은 소년, 기적을 만들다

★ 연예오락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MBC 28일(일) 오전 10시40분> 1998년 스코틀랜드, 숲에 취한 남자에 의해 우연히 문이 열린 한 무덤. 그런데 문이 열린 이후부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한편,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상 최악의 쓰나미 사고에서 한 소년이 21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그런데 11년 후, 이 소년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내는데...

오늘의 운세 2월 26일(음 1월 19일)

심재현 원장 (김석재·수원정형학역명사) 靑鶴道人 ☎010-5393-0358

Table with 4 columns contain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the day.

# 코골이, 피곤 때문이겠지?... 방치하면 일상이 피곤

**명·의·건·강·체·크** 코골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 시간을 통해 수면으로 휴식을 취한다. 숙면을 취할 때 우리의 신체는 피로를 회복하고 장기 및 뇌의 기능을 재정비한다. 즉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다음 날의 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풀리지 않은 피로로 인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국가 중 하나다. 최근 화제가 된 세계 17개국 3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영유아를 역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가 피로한 것은 야근

과 회식이 잦고 예전부터 잠을 적게 자는 것이 근면성실하다는 인식으로 굳어진 사회문화적인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인 수면 부족 이외에도 수면장애에서 동반되는 수면 부족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수면장애에는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기면증, 하지불안 증후군 등이 있으며 특히 가장 흔한 것은 코골이로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면 호흡장애'의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코골이는 수면장애로 인식하기보다는 잠버릇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된 하루를 보낸 경우 코골이를 한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다.

수면 무호흡증 각종 합병증 유발  
복부 비만 있을 땐 규칙적인 운동  
술·담배 등 끊어 위험요인 없애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코골이는 피로와는 별개로 발생한다. 사람이 수면을 취할 때는 호흡근육과 안구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이 이완하게 된다. 이완된 근육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밑으로 처지게 되며 이때 처진 근육이 상기도의 공간을 좁게 만들어 근육과 호흡공기의 마찰로 코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코골이는 잠버릇이 아닌 수면장애로, 코골이에서 동반되는 수면 무호흡증은 뇌의 각성을 유발해 자주 잠에서 깨게 만들며 깊은 잠을 취할 수 없게 한다. 이는 혈압의 상승과 체내 산소·이산화탄소 농도의 불균형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야기해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비만·술·담배 등)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감량한다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코골이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다면 옆으로 누워서 잠을 청해 무호흡이 없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전문의를 찾아 수면다원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하고 싶다. 본인의 코골이가 단순 코골인지 산소포화도를 저하시키는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코골이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혜윤 교수〉



## 병·원·이·모·저·모

분당차병원, 뇌경색 '땃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 임상환자 모집

CHA의과대학과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옥준 교수팀(김옥준·오승현·김진권 교수)이 국내 최초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에서 땃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의 마지막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이번 임상시험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대조 시험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2차례 정맥주사를 투여하게 된다.

신약학 변경 신청 승인 후에 2단계와 마찬가지로 급성뇌경색과 관련해 혈전용해술 혹은 혈전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 중 신경학적으로 호전이 없는 환자군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 교수팀은 1~2단계 임상시험에서 총 6명의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여하는 등 상당수 환자에서 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봤다. 단, 약물 효과는 투여 후 6개월 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대상은 19세 이상 80세 미만의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로, 발생한 지 7일 이내의 환자만 참여 가능하다. 김 교수팀은 마지막 3단계 연구 결과에 따라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부천성모병원, 눈썹절개 개두술 '키홀 서저리' 국내 첫 라이브 시연 성공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의료팀이 고난이도 뇌수술법인 눈썹절개 개두술, 일명 '키홀 서저리(keyhole surgery)'를 국내 최초로 라이브(live)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25일 병원에 따르면 이번 수술은 박익성 교수가 전남 여수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의 회의장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키홀 서저리를 시연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박 교수가 시연한 키홀 서저리는 열쇠구멍을 통해 넓은 방안을 들여다볼 수

는 원리에서 유래된 용어로, 뇌 속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오던 두개골을 넓게 절개하는 방식이 아닌 눈썹 부위만을 절개해 2.5cm 정도 작은 구멍을 뚫어 뇌동맥류 또는 일부 뇌종양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미세집속 뇌수술 기법이다.

박 교수는 2000년부터 두개골 절개를 작게 하는 미세집속적 개두술을 시행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눈썹절개 키홀 서저리를 시행해 미세집속 개두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는 신경외과 명의로 불리고 있다고 병원 측은 전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수술 후 떨어진 근력, 운동 병행한 재활 필요

**메·디·컬·칼·럼** 스포츠 손상

추가 부상 막고 관절기능 정상화  
치료기간 절반 이상 단축시켜줘  
모든 근육격계 질환에 적용 가능



스포츠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재활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회전근개 파열·반월상연골판 파열 같은 질병에 의한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근력 약화 등으로 인해 수술 부위의 기능적인 장애가 남고 이로 인해 장기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전의 상태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후 재활치료가 필

요하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회전근개 파열 후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어깨질환 환자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무릎질환 환자, 고관절 골절 후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고관절 환자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근육격계 질환 환자에 적용될 수 있다.

재활에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 능력에 대한 평가다. 슬링운동치료시스템, 고주파 치료 장비, 체외충격파 치료 장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근력과 운동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손상된 신체 상태를 정상으로 이끌어 내도록 유도한다.

스포츠 손상은 근육통이나 타박상과 증상이 비슷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욱 악화돼 관절염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스포츠 손상이 있는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정강의료재단 부평정강병원 정형외과·한방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절 가동 범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력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손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면 일반 재활보다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상 전의 관절 상태로 빠른 복귀를 돕는 스포츠 재활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 재활치료란 재활치료와 운동치료를 통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몸 상태를 손상 이전의 근력 및 운동수행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치료 방법이다. 일반 재활치료에 비해 치료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재활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뇌졸중 및 척수 손상에 의한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지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다. 물론

운동의 강도가 인체의 회복력과 복원력을 넘어서는 경우 부상을 입는데 이를 '스포츠 손상'이라 한다. 스포츠 손상은 운동 전 적절한 스트레칭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급격한 방향 전환 등의 이유로 관절에 부담이 될 경우 발생하기 쉽다.

근골격계에 손상이 발생하면 신경근육 조절력이 약해져 통증이 시작되고 부종과 움직임의 제한이 온다. 특히 출혈과 같은 외상이 없는 경우에는 육안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치료 후에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물리·약물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한번 약해진 근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 그 중에서도 스포츠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포츠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근력을 강화해 관절 기능을

본사 명예홍보이사  
탈린트 이영후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수명이 오래가는 명품 고급방수”

용인시청    남양주시청    의왕시청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영등포경찰서

2014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주요실적

- SAMSUNG 삼성전지소재
- 인천소방안전학교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경인고등학교
- 송전중학교
- 용진부전산림조합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곤지암 (031)767-0470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가평소방서, 박노준 설악남성의용소방대장 취임식 가져

가평소방서는 25일 가평군 설악면 축협 설악지점 3층 회의실에서 설악남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오구환 도의원, 조중윤 군의회 의장 및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노준 설악남성의용소방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애쓴 이경수 전 대장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 대원들의 단합을 통해 설악의용소방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 힘내라 우리 선수들! '평창 희망' 힘차게 응원

**한국지역난방공, 동계올림픽 종목 루지·알파인스키 후원금 2018년 개최까지 총 4억 지원... 경기장 건설현장 시찰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4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동계올림픽 종목인 루지 및 알파인스키 발전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루지 및 알파인스키 선수들의 발전을 위해 추진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계스포츠 종목 후원은 2013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되는 2018년까지 매년 7천만 원씩, 6년간 약 4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장애가구인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진행됐다. 임직원 자녀들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임직원자녀 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사회가치관을 심어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지 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2013년도에 루지 종목 관심과 응원을 도모하기 위한 '청춘, 희망을 달린다' TV 캠페인 광고를 제작·송출하며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에 노력했다. 당시 이 캠페인은 소속팀 없는 루지종목 선수들이 경기기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6기를 먹으며 훈련하는 등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그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ihoilbo.co.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소지 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2013년도에 루지 종목 관심과 응원을 도모하기 위한 '청춘, 희망을 달린다' TV 캠페인 광고를 제작·송출하며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에 노력했다. 당시 이 캠페인은 소속팀 없는 루지종목 선수들이 경기기속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6기를 먹으며 훈련하는 등 불투명한 미래를 고민하는 모습을 그렸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c@kihoilbo.co.kr



백왕현 제 18대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취임

여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회의실에서 농업인 단체 임원 및 관계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7·18대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진영 회장은 임사에서 “지난 1년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임기를 보람 있게 마칠 수 있게 해 준 임원 및 회원들께 감사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백왕현 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농업인단체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 장애인과 케이크 만들며 나눔 행복 배웠어요

###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임직원 자녀 85명 봉사교육 진행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들이 엄마, 아빠 회사에서 '나눔'교육을 받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중학생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임직원 자녀 85명(초등학생 45명, 중학생 40명)은 지난 24일 오전에 디지털시티에서 '나눔의 가치', '나눔의 방법' 등에 관한 이론교육을 받았다. 또 오후에는 광주시 한사랑장애영아원에서 장애가구인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삼행시 짓기, 장기자랑 등의 생일파티 봉사활동도 펼쳤다.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단 김석은 부장은 “임직원 자녀들이 지역 사회와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부모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매년 임직원자녀 사회공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사회가치관을 심어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원들 뿐만 아니라 임직원 가족들에게도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올바른 사회가치관을 심어 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안규 기자 sims@kihoilbo.co.kr



### 안산 상록구-안산대,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안산 상록구는 지난 24일 상록구청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240명을 모시고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은 안산대학교 LINC사업단 및 평생교육원 주관으로 안산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과 서수용 교수와 평생교육원 박상주 원장, 대학생 등의 IT 재능기부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사진촬영을 하는 동안 어르신들에게 메이크업, 머리스타일, 한복을 제공했으며 촬영된 사진은 보정작업을 거쳐 액자로 제작해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 촬영을 마친 한 어르신은 “영정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애쓴 안산대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박상주 원장은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병장수의 마음을 담아 재능기부 봉사를 하게 됐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다양한 사회봉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 의정부시 재정관리 시민과 함께

### 주민참여 예산학교 개최... 참여위원 39명 위촉

의정부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정보도서관에서 열린 주민참여 예산학교는 시의 재정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 주민참여 예산제 등 예산 전반에 대한 위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학교에서는 제3기 주민참여 예산위원 39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홍귀선 부시장, 부위원장에 최경주 위원, 분과위원장 4명을 선출했다. 주민참여예산위는 오는 4월부터 각 분과회의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오영춘 기획예산과장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예산위원들이 지역사회 오피니언리더로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발굴·선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 경기경찰청 수원지역 기업·기관 찾아 안매커소 홍보

경기지방경찰청은 25일 오전 '안전띠 매기, 주간 전조등·방향지시등 켜기'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와 소통 확보를 위해 수원지역 삼성전자, 경기도청, 수원여객, 택시운전자를 찾아 '안매커소 운동' 순환 집중 캠페인을 실시 중인 경찰관 격려 및 도민 대상 안매커소 운동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용선 경기경찰청장은 공무원·기업체 직원·버스운전자·택시운전자 등을 상대로 '안매커소 운동' 홍보도 실시했다.

심안규 기자 sims@kihoilbo.co.kr

## 평택시의원들은 정책 열공 중

### 청소년·도시경관 분야 등 5개 연구단체 활동 승인

평택시의회의는 지난 23일 제180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청소년 미래발전 연구회', '도시경관 디자인 연구회', '문화·교육 연구회', '자전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연구회', '승마 외승코스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청소년 미래발전 연구회'는 오명근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기성 의원과 서현옥 의원으로 구성됐다. 또, 김수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도시경관 디자인 연구회'는 이희태 의원과 이병태 의원이 함께 활동할 계획으로 안전성, 기능성, 효율성이 함께 조화를 이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인 '문화·교육 연구회'는 김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김재균 의원, 유영삼 의원으로 구성, 품격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해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과 시민 역량 강화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전거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연구회'는 김윤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권영희 의원과 박현우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영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승마 외승코스 연구회'는 양경석 의원과 최준안 의원이 함께 활동, 승마 외승코스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외승코스 개발로 말(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흥정 기자 hjk@kihoilbo.co.kr



### 여주썰, 겨울사진 시·사진 입상작 늘푸른센터 전시

여주경찰서는 지난 24일부터 3월 11일까지 17일간 늘푸른센터에서 '겨울사진 시·사진전'의 입상작 26편을 전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주경찰서는 문화를 매개로 직원들과 시민과의 화합을 위한 겨울 시·화·사진전을 계획하고 지난 18일 심사를 거쳐 사진 23점과 시 3편을 선정해 경찰서 늘푸른센터에 전시, 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여주 신록사의 겨울모습, 덕유산의 겨울모습 등 멋진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나가는 겨울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 고양썰, 장애인·어르신 초청해 현장체험 인권 진단

고양경찰서가 관내 장애인과 노인 등 치안 약자를 위한 '현장체험 인권진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지역 내 장애인과 노인 등 치안 약자 5명을 경찰서로 초청해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제출과 피조사 단계 등 경찰 업무 전반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요소, 불편사항, 관행적 인권침해 행위에 따른 시설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고양시의 종합민원실 장애인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적극 이 해시키고 점자와 음성 안내판 이용방법 및 사건접수과정, 수사과 사건처리, 장애인 수사 매뉴얼 비치 확인, 진술녹화실, 유치장 체험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서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이 우리 경찰서를 방문시 정당한 권리를 보장



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종 제도 및 시설물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원스톱 민원서비스, 민원 사전예약제를 확대 운영해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치안약자 권의 보장이 더욱 세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 청정 채소로 식문화 배우고 녹색 농촌의 매력 느껴봐요

### 연천군 푸르내마을 체험관 준공... 수의 일부 기부

연천군은 25일 청산면 궁평리 푸르내마을 체험관에서 김규선 군수를 비롯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 푸르내마을 체험관 준공식을 가졌다. 이는 접경지역인 푸르내마을에서 생산되는 각종 청정농산물인 식재료를 활용해 식문화를 체험하는 체험관 및 야외 체험장을 조성한 사업으로 관광객 및 체험객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자리가 된다. 이 체험관은 1층에 식당을 겸한 강당, 2층은 체험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9개 실을 배치하고 3층은 단체 체험객 이 회의 및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배치해 신축됐다. 김 규수는 “본 체험관이 푸르내마을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장소로 많은 이들에게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선기 푸르내마을 위원장은 “체험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학교, 기업, 각종 단체 등과 자매결연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함께 매년 마을경로당 등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있다”고 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ihoilbo.co.kr

# 효자·효부들, 미래 새싹 키우기도 한결 같아라

(사)인천시효도회, 지역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사)인천시효도회는 25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장학금 10명을 선정해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이진우(성균관대)·김기현(건국대)·이혜린(재능대)·임주환(광성고3)·김환준(만수고3)·최윤희(인천예고3)·박현아(서일고3)·유미래(막문여고3)·김예지(연수여고2)·백승원(송도고1) 학생 등이 장학금으로 선정됐다.

효도회는 정부나 사회단체로부터 훈·포장, 표창을 받은 효자·효부들이 모여 1986년 설립한 사회봉

사단체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 지금까지 93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장학생들은 법조인 비롯해 지역 사회와 전국 각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이명래 회장은 “효자·효부들의 자발적인 장학금 기부와 김명운 DNF㈜ 대표의 2010년부터 이어온 꾸준한 장학금 기탁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효도회 장학생들이 사회에서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 정성훈 신임 산업인력공단 중부본부장 본격 업무

신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부지역본부장으로 정성훈(55) 공단 홍보실장이 취임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81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인력개발학)을 졸업한 뒤 이듬해 공단 충남지사예 입사해 경남지사 관리부장과 경기지사 기업지원팀장,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단이 정부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인적자원 개발 일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중국 기자 kjk@kohoibo.co.kr



## 최기화 프레임 대표, 남동21C 교류회장에 취임

(사)중소기업융합인천김포연합회는 최근 ‘남동21C 교류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임 회장단 이대훈 (썬진보일리 대표)에 이어 교류회 신임 회장으로 최기화 (주)프레임 대표가 취임했다.

최 신임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회원사 간 기술 교류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bo.co.kr



## 강화군 노인복지관, 정월대보름 율놀이대회 성황

강화군 노인복지관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난 24일 강당에서 새해 새 희망을 꿈꾸는 율놀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율놀이대회는 이상복 군수, 안상수 국회의원, 박용렬 대한노인회 강화군 노인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율놀이대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128명이 참가한 가운데 1조에 8명씩 16개 조로 나뉘어 진행했으며 이차상 8명, 장려상 4명, 1~4등에 상품을 증정했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도 노인복지 시책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 교실, 건강 100세 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bo.co.kr

# 공공구매 판로 늘려 여성 기업 경쟁력 쑥쑥

## 인천조달청, 인천·경기 여성 CEO 초청 간담회

인천지방조달청은 지난 25일 경기·인천지역 소재 여성 경제인을 초청해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 방안 논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김금자 경기지회장과 이은자 인천지회장 등 13명의 경기·인천지역 여성 CEO가 참석했다. 강경훈 인천조달청장은 “21세기에는 소프트하고 세심한 여성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여성 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기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중진 기자 jongjb@kohoibo.co.kr



## ‘디테일의 힘’으로 범죄·사고 예방 힘쓰자

김치원 인천경찰청장 강화홍 방문 애로 청취

김치원 인천지방경찰청장은 25일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치안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청장은 강화서장 등 70여 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하용철 강화서장의 지난해 업무성과 및 2016년 중점 추진 업무 보고에 이어 일선 경찰관의 건의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치원 청장을 특강을 통해 “사고는 디테일을 간과 했을 때 터지는 것”이라며 ‘디테일의 힘’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2013년 3월 강화 외포항에서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던 중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한 고 정옥성 경찰 사고 현장인 외포리를 찾아 고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o2@kohoibo.co.kr



## 국방력 결맞은 안보의식 갖추길

###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호국안보결의대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가 25일 인천 남구청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고용희 시지부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10개 군·구 지회장과 지부 회원 300여 명, 노경수 인천시의회의장, 박우섭 남구청장,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고 시지부장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7위인 것과 비교해 최근 국가 안보의식이 흔들리고 있어 안타깝다”며 “짧은 시간이나 국가 안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회, 인천지역 학교와 연계해 올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혁연 기자 khy@kohoibo.co.kr



시지부는 이날 감사보고와 2015년 결산보고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올해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안보 강연을 진행해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 “새로운 시대 발맞춰 더욱 성장할 것”

### 진영LDM ‘설립 20주년을 맞는 우수 기업’에 선정

심영수 (주)진영LDM 대표가 지난 24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개청 20주년 기념식에서 ‘설립 20주년을 맞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심 대표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심 대표는 현재 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서부지회장을 맡고 있다.

김중국 기자 kjk@kohoibo.co.kr



## 세일급

### “IFEZ 새 가치창조 뒷받침”



황기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첫 개방형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황기영 전 (주)송도아메리칸타운(SAT) 대표가 임용됐다.

신임 황 차장은 1963년생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이윤성 국회의원의 장 비서실장과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 정부운영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황 차장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달성과 인천의 새로운 가치 창조에 미약한 경험이나 의미 있는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IFEZ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동 기자 ain@kohoibo.co.kr

## 본사손님

<경기본사>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신임 인사차

## 인사

| 의정부시 | ◇승진 <5급> ▶여성가족과장 팽재너 ▶건축과장 김동수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의정부1동장 김태완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이재승 ▶북지지원과장 홍은숙 ▶신곡1동장 왕춘식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북지지원과장 한수완 ▶가능1동장 이순철

## 알림

▶2016년도 인천시 통합방위회의=26일(금) 오전 10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원동 대강당(3층). ▶수인선 복선전철 송도~인천 구간 개통식=26일(금) 오후 2시 수인선 송도역. ▶국제청소년연합(IYF) ‘2016 뉴스코 페스티벌’ 인천공연=27일(토) 오후 7시 IYF인천센터(남동구 경신상로 76).

## 모임

▶푸른광명21 제18차 정기총회=26일(금)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 ▶파주문화원 정기총회=26일(금) 오전 10시 30분 운영행복센터. ▶한국산업단지 남동공단경영자협의회 회장 이.취임식=26일(금) 오전 11시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느와르홀. ▶새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제4차 이사회=26일(금) 오전 11시 우리가본집 회의장. ▶2016 군포시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26일(금) 오전 11시 시의회 문화강좌실.



## 인천항발전현, 총회서 물동량 증가 대책 등 논의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이하 인발협)는 25일 파라다이스 호텔 인천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도 업무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규복 인발협회장은 제1항로(팔미도~북항)의 계획 수심 확보와 국제여객터미널 및 주변 개발 방안, 신항 배후단지 적기 공급, 인천항 물동량 증가 대책 등을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가 돼 더 늦지 않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데 회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중진 기자 jongjb@kohoibo.co.kr



## 농협 인천본부 ‘금융사기 ZERO 추진 결의대회’

농협 인천지역본부는 대표회장 근절을 위한 ‘금융사기 ZERO 추진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 내 농·축협 상임이사와 지점장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최인태 본부장은 “대표회장 근절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농·축협과 함께 인천농협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표회장을 1%대 이하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ohoibo.co.kr

# 경기도 불패신화, 하루 먼저 왔다

**동계제전 오늘 폐회 앞두고 일찌감치 15연패 확정**

컬링·바이애슬론 고른 활약... 인천은 동메달 추가하며 종합 9위 유지

경기도가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폐회 하루를 앞두고 종합 우승 15연패를 확정지었다. 도는 25일 대회 사흘째 컬링과 바이애슬론, 스키 알파인·크로스컨트리 등에서 금 6개, 은 8개, 동메달 8개를 추가하며 이날 현재까지 금 75개, 은 68개, 동메달 67개로 종합점수 1천145.5점을 획득, 서울시(894.5점, 금 56·은 47·동 40)와 강원도(779.5점, 금 38·은 46·동 33)를 제치고 대회 개최(사전경기 포함) 이후 출근 선두 자리를 지키며 사실상 15년 연속 종합우승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2년 제83회 전국동계제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래 15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도는 컬링 남자고등부와 여자중학부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했다. 남자고등부 결승에서 의정부고가 서울체고를 9-2로 대파하고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차지했으며, 여자중학부 결승에서도 화릉중(의정부)이 경북 의성여중과 팽평한접전 끝에 5-4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년 만에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했던 도 컬링은 올해 여자고등부 송현고(의정부)가 1회전에서 맞수 경북 의성여고에 패하면서 금 3개, 은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점수 92점을 얻어 경북(1

00점, 금 3·은 1·동 2)에 종합우승을 내주고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고등부 22.5km계주에서는 포천일동고(이근일·하정호·임승현)가 58분50초3으로 강원 진부고(59분33초0)와 강원 황지고(1시간00분37초5)를 꺾고 깜짝 우승했다. 여자고등부 8km계주에서도 일동고(정주미·아베마리아·김인경)가 1시간03분03초0으로 강원 대학교(1시간05분32초0)와 전북선발(1시간10분10초7)을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정주미는 1.25km 개인경기와 이날 열린 계주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어 남자중학부 18km계주에서는 일동중(김규찬)과 이동중(곽한솔·조진수)이 한 팀을 이뤄 55분52초05로 전북선발(57분17초0)과 강원 황지중(58분51초1)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 밖에 스키 알파인 남자대학부 대회 전에서는 박제운(단국대)이 1분51초77을 기록하며 김동우(울산·한국체대·1분52초98)와 최창현(충남·단국대·1분53초0)을 제치고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동메달 1개를 추가하며 은 2개, 동메달 5개, 종합점수 234점으로 9위를 유지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ihoilbo.co.kr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봅슬레이 연습경기에서 김권형(경기북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파일럿)·관형(평택 안중고·브레이크형체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토트넘 손흥민

스완지 기성용

## EPL 맞대결 가능성 99%

토트넘·스완지시티 28일 27라운드 체력 비축 손흥민 vs 구심점 기성용 출격 요건은 갖춰 코리안 더비 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과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첫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토트넘과 스완지시티는 28일 오후 11시 5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2015-2016 EPL 27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다.

28일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출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손흥민은 당장 26일 이탈리아 세리에A의 강호 피오렌티나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32강 2차전을 앞두고 있다. 팀의 주력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이 코뼈 부상으로 피오렌티나전에 뛰지 않는 만큼 손흥민이 전방 공격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스완지시티와의 다음 경기가 이틀 만에 열리는 만큼 체력적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올 시즌 중반까지 후반 조커로 뛰며 체력을 비축했던 점을 감안하면 감독으로서는 충분히 손흥민을 활용할 만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올해 12경기에 선발 또는 교체로 모두 출전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레스터시티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공격포인트는 없지만 최근 움직임은 가법다는 평가다.

기성용은 3일 EPL 24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전에서 경향 도중 상대 선수와 머리를 부딪힌 뒤 뇌진탕 증세로 교체됐다. 이후 7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출전하면서 빠졌던 기성용은 13일 사우샘프턴전에서는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그러나 스완지시티는 토트넘, 아스널 등 상위권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심을 잡아줄 기성용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 염태영 시장, 수원FC 선수단에 사기충전

K리그 클래식 출격 첫해 전력 UP 전후지 찾아 연습경기 관람 응원

계 전지훈련장을 방문해 연습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5일 프로 축구 수원FC의 전지훈련장인 경남 거창군 거창공설운동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수원FC는 올해 처음으로 진출한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거창공설운동장에서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다.

수원FC 구단주인 염 시장은 이날 수원 FC, 수원시축구협회 관계자 등과 함

염 시장은 "어려움을 딛고 K리그 클래식 무대에 진출한 수원FC 선수단과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K리그 클래식 신생팀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감동을 줄 것으로 믿고 모두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수원시정축구단으로 창단된 시민구단 수원FC는 열악한 재정을 딛고 실업팀 내셔널리그와 K리그 2부 챌린지를 거쳐 올해 1부 리그인 클래식에 합류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ihoilbo.co.kr

## 포스코에너지 탁구팀, 루마니아 대표와 동반훈련

유럽 여자탁구 강호 루마니아 대표팀이 인천을 찾아 인천 연고 여자탁구 실업팀 포스코에너지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며 우정을 쌓았다. 비오렛 필리몬(63)감독이 이끄는 루마니아 여자탁구 대표팀은 지난 21일 한국에 들어온 후 22일부터 23일까지 태릉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들과 연습했고, 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25일 동인천고 체육관에서 포스코에너지와 하루 종일 훈련했다.

비오렛 필리몬 감독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5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한국과 인천에서의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 오늘의 경기

- ▷26일(금) ▶프로농구=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오리온-동부(오후 7시·고양체육관) ▶여자농구=국민은행-우리은행(오후 7시·청주체육관) ▶농구=제32회 MBC배 대학농구(오전 11시·서수원철보체육관) ▶테니스=여수오픈(전남 여수) ▶사이클=3-1월 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오전 9시·강진군 일원도로) ▶수영=김천전국대회 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쟁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오전 9시·김천실내수영장)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오전 8시·서울·강원·경북 일원) ▶스키=2016 국제스키연맹(FIS) 프리스타일 스키 월드컵(오전 10시·보광휘닉스파크)

### 인천시청 김태현, 김도왕대회 정상

인천시청 김도부 소속 김태현이 '2016 SBS배 전국김도왕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태현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올해 첫 대회이자 전국 최고 권위의 대회인 이번 대회 결승에서 최형준(대구 달서구)을 머리치기 두 판으로 이기고 우승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대통령기 제37회 전국일민검도선수권대회, 2015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대회 5단부 등에서도 우승한 바 있다. 고등부 최경재(서운고)는 3위에 올랐다. 최윤희 기자

## 역전 우승 이끈 심신 강화훈련 경기 영광의 얼굴 매일 6시간 땀 흘려 얻은 환호

**회룡중, 여중부 컬링 8년 만에 금**  
훈련장 두 곳 돌며 정신력 키우고 전술 보완 겸해 팀워크 다져 성과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의정부 회룡중학교는 25일 경북 의성 컬링경기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컬링 여자중학부 결승에서 경북 의성여중과 접전 끝에 5-4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윤소민 감독과 안재성 코치의 지도 아래 스킵 하승연, 서드 권솔, 세컨 김유나, 리드 원보경, 후보 정인희로 구성된 회룡중은 그동안 지역 라이벌인 의정부 민락중의 벽을 넘지 못하며 전국동계제전과 인연이 닿지 않았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끝에 2010년 제91회 대회 이후 6년 만에 동계제전 출전권을 획득한 회룡중은 결승에서 홈팀 의성여중을 맞아 3-4로 뒤지던 마지막 10엔드에서 2점을 때내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제89회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회룡중은 마지막 10엔드에서 한 점을 때내 동점을 만든 뒤 곧바로 역전을 알리는 썸점수를 뽑아내는 저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청소년대표인 회룡중은 각종 국제대회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지난해 신세계이마트배(5월), 중교연맹회장배(7월), 회장배(10월) 우승에 이어 2015-2016시즌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동두천 국제컬링경기장과 태릉빙상장에서 훈련을 해왔다는 윤소민 감독은 "기본기에 충실하며 전술과 정신력 강화훈련에 주력한 것이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ihoilbo.co.kr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5일 강원도 알펜시아경기장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남자중학부 18km계주에서 곽한솔(3년·조진수(2년·이상 포천 이동중)·김규찬(포천 일동중 1년)이 한 팀을 이뤄 55분52초0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도 바이애슬론 남자중학부가 계주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제88회 대회에서 일동중이 우승한 이후 9년만의 쾌거다.

도 바이애슬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자중학부, 남녀 고등부와 달리 남자중학부는 유독 동계제전에서 저조한 성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6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바이애슬론 남중부 18km 계주 금**  
포천 이동중·일동중 세 명 '합심' 체력 등 강점 살려 9년 만에 우승

훈련을 쌓으면서 결국 9년 만에 동계제전 우승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만형 곽한솔은 훈련에 임하는 자세와 사격 집중도가 뛰어나며, 중·장거리 육상선수 출신 조진수는 강인한 체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대한바이애슬론연맹의 청소년 꿈나무인 김규찬은 남다른 근성과 성실함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들의 우승은 각자 기량 이상의 활약을 펼쳐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단일 학교는 아니지만 함께 훈련하고 생활하다 보니 어느 팀이었는 팀워크가 뛰어난 것이 강점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해 내년 동계제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ihoilbo.co.kr

## 경기탁구협회 경기총회 양광우 20대 회장 선임

경기도탁구협회는 25일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 세미나실에서 2016년도 경기대회총회를 열고 양광우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을 제2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양광우 선임 회장은 도탁구협회 규약 제10조(회장의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공공기관·은행 등 당해 단(업)체가 회장의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당해 단(업)체에서 추천된 자가 당년직 회장이 된다'는 조항에 따라 자동 선출됐다. 양 회장은 서울 대신고와 한국외대 불어과 출신으로 1988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마케팅팀장, 고양 회장직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홍보부장, PWM 업무조정센터장, 브랜드전략본부장을 거쳐 지난 1월 경기중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도탁구협회는 또 도탁구연맹회와의 통합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의결했고, 올해 사업 예산을 1억5천800여만 원으로 확정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ihoilbo.co.kr

## 인천Utd '1000만 원 시즌권' 첫 구매자 나왔네

나은병원서 '플래티넘 11' 구입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출시한 명품 시즌권 '2016 플래티넘 11' 1호 구매자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나은병원(인천시 서구 가좌동 소재)은 인천지역에서 지난 2011년부터 나은병원장배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축구사랑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이다.

하현영 원장은 "축구를 통한 인천 사랑, 나아가 나라사랑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시즌권 혜택을 인천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나눠줘 이들이 인천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구단이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내놓은 1천만 원짜리 시즌권 '플레



티넘 11'은 프로축구 상품가치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플래티넘 11' 구매자에게는 회원 이름이 새겨진 프리미엄 좌석과 함께 스카이박스 식사 제공 및 최고급 차량 픽업 서비스 등이 주어진다. 또 골

프장 무료 라운딩 및 호텔 숙박권, 종합병원 건강검진권, 외식 식사권, 영화관람권 등도 함께 제공된다.

인천구단 관계자는 "'플래티넘 11' 판매금액 일부를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회헌 명의로 기부하고, 회헌명판을 제작해 보존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플래티넘 11'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한데 모으면 약 1천500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래티넘 시즌권으로 거둔 수익은 일반 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내년 시즌부터 등급별 다양화를 통해 판매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나은병원은 '플래티넘 11' 시즌권 구매와 별도로 1천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권을 인천구단에 기부했다. 최윤희 기자 cyt@kiihoilbo.co.kr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어지러운 세상에 또 하나의 관심과 애국을 되살리고자 인천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라톤대회를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의 인천 중구청 차리에 위치했던 인천시청 입구에서 동구를 거쳐 서구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왕복 20km에 달하는 거리를 뛰는 단축마라톤대회로, 인천지역 육상선수들은 물론 일반 학생들까지 3·1절 당일 인천 중심지를 가득 메웠다. 이렇게 시작한 3·1절 기념 단축마라톤대회가 60여 년이 지난 지금, 국제도시 송도에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인들까지 참가해 대회의 의미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3월 1일 개최되는 '제65회 3·1절 단축마라톤대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인천 3·1절 단축마라톤 세역사 달음질

## 학생부터 어른까지 '나라사랑' 품고 달린다

# 인천 3·1절 단축마라톤대회  
반세기를 훌쩍 넘어 이제는 100년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천 3·1절 단축마라톤대회도 또 다른 역사를 향해 댕다. 인천육상경기연맹과 본보가 주최하는 3·1절 단축마라톤대회가 65번째 봄을 기다리고 있다. 봄을 여는 질주, 송도국제도시를 달리는 명품 코스는 이제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마라토너들에게까지 눈길을 끌 전망이다.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이번 대회는 3km, 5km, 10km 등으로 나눠 3km는 초등, 5km는 중·고교, 10km는 일반 등 남·여·단체(학교)로 치러지면서 수준 높은 질주가 예고된다. 아시아대회를 치른 스포츠 중심 도시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송도국제도시 숲찬공원을 출발선으로, 인천랜드마크 송도의 웅장함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 있는 코스를 달리게 된다. 기록은 비공인이지만 초등과 중·고교 남녀 개인과 단체 1~3위씩 각각 9개 부문, 일반 남·여 1~6위 등 12개 부문 등으로 나눠 시상한다. 참가 자격은 2015년도 선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소속장이 출전을 승인한 자이다. 단, 초교는 선수 등록 여부 제한이 없다. 단체는 무제한 참가를 허용하며, 중등부와 초등부는 각 3명을 단위로 한다. 주최 측은 쌀쌀한 날씨 속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참가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어묵탕과

인천육상경기연맹·본보 주최  
일반 마라토너에도 문호 개방  
송도국제도시 3개 코스 질주  
한적 푸드트럭 등 부대시설도

목욕 축일 수 있는 약간의 인천특주를 준비, 건강과 따뜻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먹거리리는 대한적십자 인천지사 푸드트럭이 직접 대회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응원한다.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대회 당일 행사장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되고, 주행 코스를 따라 반환점과 코스 곳곳에 음료대를 설치한다.

# 3·1절 단축마라톤대회 코스  
도시를 따라온 열기로 달걀 대회 출발 총성은 오전 10시 10분께 숲찬공원 풍차 앞에서 10km·5km·3km 순으로 5분 간격으로 울려 퍼진다. 참가자들이 접수대에서 배변과 머리피를 받은 후 숲찬공원을 출발해 송도국제도시에서 다소 교통이 한산한 인천대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지난해 전 세계 골프영웅들이 총출동한 프레지던트스퀘어 골프대회가 열렸던 잭니콜라우스 골프장이 보인다. 3km 반환점은 잭니콜라우스 골프장 16번홀 옆 도로에 설치돼 있으며, 이곳을 돌 때는 목욕 축일 수 있도록 음료대가 설치돼 있다.



3km 반환점에서 골프장을 타고 달리다 보면 또 다른 인천 예술의전당으로 거듭날 인천아트센터 공사장이 나오는데, 그곳을 들어가는 입구 인근에 5km 반환점이 설치돼 있다. 거기서 서해 바다 쪽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국내 유일의 시가지 자동차경주장인 '송도 스트리트 서킷'이 나오는데, 그쪽 주변 도로에 마지막 10km 반환점이 나온다. 송도국제도시를 끼고 달리는 3·1절 단축마

라톤대회 전체 코스 안내는 연수경찰서 사이드카 경찰들이 앞에서 안내한다. 화합과 우정의 즐거운 질주로 이어질 이번 대회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인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인천 마라톤 동호인들의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인 만큼 일반인 1천여명, 학생 3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해 인천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 인터뷰 김경배 인천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 많은시민 함께 뛰며 애국 정신 되새기길

“올해 3·1절 단축마라톤대회는 코스 공인 인증 준비, 일반인 확대 등의 절차를 밟는 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정식 대회라기보다 3·1운동 정신과 애국하는 마음을 달리기 위해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으면 한다.”

3·1절 단축마라톤대회를 책임지고 매년 성공적으로 치른 김경배 인천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는 이번 대회가 일반인들까지 확대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1975년 고교 1학년 때 육상을 처음 시작함과 동시에 그해 3·1절 단축마라톤대회에도 출전했다는 김 전무는 “아직 쌀쌀한 감이 있지만 마라톤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며 “벌써 경기도에서는 2월에,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도 마라톤을 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이후 달린다던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통과 예산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는 “지나해부터 인천에서 가장 도로 사정이 좋은 송도국제도시와 올해 코스를 중앙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대회 기분이 탄탄히 다져질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일반인도 참가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의미 있는 대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운동으로, 완주했을 때의 짜릿함은 비견할 게 없다. 만약 중도에 포기한다 해도 도전했다는 자부심과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남기는 운동”이라며 마라톤을 자랑했다.

최윤희 기자 cyt@khihoilbo.co.kr

### 장거리 뒹뒹기 건강관리 필수!

##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피로회복 해줘야



뛰기 전 10분 정도 온몸 운동

끝난 후 강도 낮춰 근육 활동

대회 당일 전문강사 따라하자

#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으로 정령이 난 운동인 만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 준비운동과 뛰고 나서의 정리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의욕이 하늘을 찌를 듯해도 평소 달리기나 빨리 걷기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몸은 운동을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준비운동의 목적은 몸이 운동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차가운 근육은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쉽게 부상을 당한다. 운동에 필요한 따뜻한 혈액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준비운동에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온몸 운동이 들어가야 한다. 팔과 다리와 몸통을 10분 정도 쉴 새 없이 움직여 주고 나서 가볍게 스

트레이닝을 해 주면 된다. 마라톤이 끝난 후 이완된 근육을 어떻게 푸느냐는 피로 회복과 밀접하다. 준비운동은 활동량 증가 수준에 맞게 우리 몸을 준비시킨다면, 마무리 운동은 반대로 평소 속도로 몸을 되돌리는 과정이다. 준비운동 단계에 했던 동작과 동일하면서도 강도는 좀 낮은 동작으로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10분이나 15분 정도 근육을 활동하게 해 준다. 부위별 스트레칭은 15~30초 정도씩 각각 2회에서 3회씩 해 주면 된다. 초보자들을 위해 대회 당일 출발선에는 전문 스포츠강사의 지휘 아래 10여분 동안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준비운동을 실시한 후 출발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회원들이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전문상담사 해고 철회와 고용보장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 시흥 전문상담사 전원 실직 책임지려는 곳 하나도 없다

### 시 '인건비 중단 37명 해고'에 반발 교육공무직 경기지부 기자회견 시흥-교육청 '나몰라라' 도교육청 담당부서 없어... 대책마련 촉구

시흥시의 인건비 중단으로 집단 해고된 초·중·고등학교 내 상담사 37명이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전문상담사 인건비를 책임지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고용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고된 상담사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5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도교육청은 담당부서조차 없

어 책임지려는 태도가 전무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도내 다른 지역 상담사들과 달리 시흥시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으며, 10개월 단기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간 학교에서 일해 오다 지난해 말 시의 지원이 끊기자 집단 해고됐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도교육청 입장에서 비정규직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편법 10개월 쪼개기 계약, 외주 업체 용역으로 비정규

직이 양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리잡고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흥시 전문상담사의 경우 교육청 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 경기지부 조직국장 A(50)씨와 시흥지역 학교전문상담사 B(49·여)씨 등 8명은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불법 집회를 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기현 기자 hyun@khihoilbo.co.kr

# 인력·장서확보 어려워 사라지는 작은 도서관

<수원시내>

### 공동체 문화 형성 취지 무색 지난 2년간 8곳씩 폐관 소식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수원시내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관하거나 폐관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 등 상주 인력이 없어 체계적인 운영이 힘든데다 장서확충도 부실해 취지에 부합한 도서관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내 작은도서관은 2014년 116개, 2015년 117개, 올해 118개이지만 폐관한 도서관은 2014년, 2015년 각각 8곳으로 올해 중 이미 폐관을 신청한 곳도 있다.

작은도서관은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복원기금을 활용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9년 도서관법에 따라 공식적인 등록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의 인허가 이후 공동체에서 자체 운영된다.

현재 수원시내 작은도서관 118곳 중 49곳은 세마물문고로 운영돼 지원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나머지 69곳의 경우 아파트, 종교시설, 기관 및 단체 등 마을공동체에 운영되는 곳이 대다수라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뜸해져 개소 당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

운영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장안구 A작은도서관의 경우 지자체의 봉사인력 지원이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공동체 식 구둑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원봉사인력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마당에 실비봉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상주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크다.

A작은도서관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씩 상주할 인력을 구할 경우 한 달에 4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작은도서관은 이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이 금액을 지불하기도 빠듯해 봉사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갑자기 봉사자가 빠질 경우에는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

권선구 B작은도서관의 경우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서관이지만 정작 어른들이 읽을 만한 책은 전체 1천여 권 중 30% 정도로 손에 꼽았다. 자체 운영이다 보니 꾸준한 장서보급이 어려워 주로 단체의 기부로 확충하는 터라 연령에 따른 도서 구매는 거의 드문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은도서관 개소 취지가 자립형 도서관 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만은 없다"며 "자립형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불비 개관하기보다 개관 전 운영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폐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hyun@khihoilbo.co.kr

###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만 노래 강도짓 3곳 220만 원 상당 금품 턴 30대 '쇠고랑'

여주인 혼자 있는 노래방만을 노래 강도 행각을 벌여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강도 혐의로 전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흥기로 여주인 A(34)씨를 위협한 뒤 14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노래방 3곳에서 22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손님을 가징해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본 뒤 여주인 혼자 있으면 강도로 돌변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시내버스, 열차 등의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현 기자 hyun@khihoilbo.co.kr

### 평택항 터미널 주차장서 50대 숨진 채 발견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중국 왕래 보따리상 A(58)씨가 25일 오전 7시 1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 27분께 중국 르자오(日照)행 여객선을 타려고 했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한 이후 본인 차량에서 술을 마시며 쉬고 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 사망해 있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의상이 없는 점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평택=김진태·홍정기 기자 jtk@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2월 26일(금)

해동 07:09 | 달동 21:38  
해질 18:22 | 달질 08:49

**하늘에 구름 응단**  
밤에 눈 또는 비 오는 곳 있겠음. 아침 최저기온 -5~-1도, 낮 최고기온 4~6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확률 (%)		
종류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남서~서 6~11	0.5~1.5	인천	20	20
남해	남서~서 7~11	0.5~1.5	수원	20	20
동해	서~북서 7~11	0.5~1.5	동두천	20	20
			이천	20	20
			양평	20	20
			강원	20	20

제공 Kweather www.630.co.kr

#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3주 만에 104명 덜미

### 경기경찰, 215건 접수 9명 구속

연인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이 3주 만에 104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한 달간 도내 일선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대응 TF를 구성,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을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간 발생하는 폭행, 살인, 성

범죄, 강금, 약취유인, 협박, 명예훼손 사건 등으로 분류하고 가해자 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등 범죄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3주 만인 24일 기준 경기경찰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15건으로,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김모(44)씨는 10년간 동거하다가 8개월 전 헤어진 A(4

6·여)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안방에 있던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13일 또 다른 김모(31)씨는 교제한 지 2개월 된 여자친구 B(27)씨가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2차례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는 등 지난해 말부터 5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심연규 기자 sims@khihoilbo.co.kr

### 자신의 자전거인양 태연히 슬쩍... 상습절도범 둘 구속

최근 추위가 풀리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자전거 도난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박모(21)씨와 채모(58)씨 등 2명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오모(53)씨와 A(13)군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자전거 6대를 훔쳤고, 채 씨 등 3명은 같은 기간 1대씩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자전거보관소, 버스

정류장, 주택가 등에서 잠금장치가 없으면 그냥 들고 가거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낮 시간에 자전거를 훔쳤지만 자신의 자전거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 행인들에게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다. 박 씨는 훔친 자전거를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고, 채 씨와 오 씨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대한민국 희망도시 파주**

더 새롭고 더 밝게 빛나는 미래가 약속된 기회의 땅 파주!  
통일한국 중심도시의 꿈을 향해 도약하는 파주,  
지금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 세관관리 허점 틈타 '폐차 둔갑' 외제차 455대 또 컨테이너 뒀다

## 고가 중고차 밀수출 속도 매매단지 업체들 덩이

수출서류를 위조해 고가의 중고차를 불법으로 빼돌려 사법당국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불법 컨테이너 설치와 무등록 자동차 정비로 말썽을 빚어 온 인천 송도관광단지 내 중고차매매단지 업체들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 대한 관할 구청의 행정대집행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경찰청은 관세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매매단지에 상주한 업체 가운데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과 근저당 설정 등 문제가 있는 중고차량 455대를 밀수출한 수출업자 17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4월부터 인천경찰청과 실무협업체를 시작으로 총 38명의

세관·경찰 합동수사팀을 만들어 이곳 중고차매매단지 내 업체 8곳과 선박·포위업업체 10곳 등을 압수수색해 차모(47)씨 등 7명을 자동차 밀수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3~7월 수출신고 내역과 선박 적재 내역을 확인해 1천727대의 중고차 밀수출 범행을 적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같은 수법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폐차 직전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전용선박이 아닌 컨테이너에 넣어 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컨테이너를 일일이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기란 힘든 실정이다"라고 했다.

최근 3년간 인천항을 통해 수출된 중고차만 51만9천여대에 달하지만 세관 직

2012년에 적발된 범행 수법 답습 관세청 "일일이 개봉검사 힘들어" 경찰 "송도 업체 수사 확대 방침"

원이 직접 확인한 것은 1만3천여대에 불과해 수출신고내역서 등 위·변조된 서류와 다른 차량을 적발해 내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중고차 수출업체 역시 이같은 허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항과 가까운 송도 중고차매매단지가 불법 중고차 밀수출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 중고차 수출의 80%를 공급하고 있는 이곳 단지 내 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곳 중고차매매단지는 이미 감사원 감사(2014년 11월)에서도 불법 사실이 적발돼 사업에 관련한 인천도시공사 직원 2



고급 외제차 등 455대를 폐차로 둔갑시켜 해외로 밀수출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과 관세청 직원들이 25일 인천본부세관 창고에서 이들이 밀수출하려던 고급 외제차를 증거물로 공개하고 있다.

명이 징계를 받았다. 관할 구청인 연수구도 지난해 말 이곳에 29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국민권익위 요청에 따라 시기를 조율해 왔다. 구는 내달 중순 송도 중고차매매

단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인천지역 고교 '즐거는 OT문화' 구축

신학기를 앞두고 최근 실시되고 있는 인천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이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기본적인 학교 소개와 함께 입학식 예행연습 수준의 예전 모습과 달리 최근에는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기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는 1~2시간 새로 배정된 학교에 가 담임을 맡게 될 교사나 학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새 교과서를 나눠 받은 정도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수련회를 떠나는 등 새로운 OT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강화고등학교는 지

### 놀이로 자기주도학습법 익히고 컬러리더십·양궁 체험 등 마련

난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신입생 OT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한 진로적성검사를 받거나 놀이로 자기주도학습법과 학습코칭을 익히는 활동을 즐겼다. 부천대 전성수 교수의 '하브루타' 교육법 강연도 마련됐다. 강화고 관계자는 "내년에도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 높임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OT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재능고 역시 25일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1



25일 인천재능고 학생들이 1박2일 일정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 '컬러리더십' 분석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태 인터넷기자 itkim@khihoilbo.co.kr

박 2일 OT를 떠났다. 300여 명의 신입생들은 각각 A·B팀으로 나뉘어 색다른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A팀은 색깔과 관련한 특성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알아보는 '컬러리더십' 분석에 참여하게 되며, B팀은 양궁·인공암벽등반·자전거하이킹 등 다양한 실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슈퍼스타 G' 장기자랑은 물론 과별 교사와의 대

화시간을 마련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재능고 관계자는 "체제로 상징되는 권위적 교사의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친밀도를 높여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신입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유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태 인터넷기자 itkim@khihoilbo.co.kr

## 인천공항 밀입국한 베트남 등 3명·조력자 2명 구속기소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언어이 밀입국한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이 각각 범행 뒤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도운 지인과 인척 등 불법 체류 외국인 2명도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중범)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1)씨와 B(31·여)씨 부부, 베트남인 C(2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국내 도피를 각기 도운 혐의로 중국인 D(47)씨와 C씨의 베트남인 매형 E(32)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 25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한 뒤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 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한 혐의

를 받고 있다. D씨는 2013년 2월께 부터 천안 등지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불법체류자로 중국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A씨 부부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휴대전화도 개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7시 25분께 같은 장소에서 밀입국한 혐의로 받고 있다. E씨는 2006년 부터 부산과 울산 등지의 공사 현

장에서 일하며 불법체류했고, C씨가 입국하자 자신의 친동생 명의를 빌려 숨겨 주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 부부를 도운 중국 내 브로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다.

한편, 검찰은 인천항 민간부두를 통해 밀입국한 베트남인 1명과 중국인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남구 마을공동체 꽃 못 피우고 구성원간 갈등으로 '흐지부지'

우각로 문화마을, 지역 활성화 목적 입주자가 모집 개인창작 원하는 예술가·주민들 대립 '실패사례'로

인천시 남구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이 구성원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처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도움을 주려 온 외부인과의 갈등으로 원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도사업으로 추진해 온 남구 송의동 전도관 인근에 위치한 우각로 문화마을이 지난 22일 이 같은 이유로 해체됐다.

우각로 문화마을은 재개발 전까지 빈집을 활용해 마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12년 조성됐다. 마을의 집을 개인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작가를 모집했고, 이들은 무상 또는 최소한

의 비용을 지불하고 마을에 들어왔다.

그러나 당초 의도와 달리 작가들은 마을 활성화보다는 개인 창작공간을 원했으며, 예술 활동비를 위한 공모사업에 집중하면서 점차 예술가가 마을의 주제로 변질됐다. 70대가 대부분인 이곳 주민들은 별다른 의견을 내보이지 못했다.

결과 주민이 소외되고 이 지역 재개발조합과도 오해가 생기는 등 갈등이 겹치면서 4년을 이어온 우각로 문화마을이 실패사례가 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을 구성원 간에 공동체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마을을 빠르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아닌,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를 이해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구에서는 주민 주도 공동체라는 의도에 맞게 공동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 공모 절차를 통해 지급된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감독하는 정도다.

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는 어떠한 성과를 보여 주기 위한 속도전이 아니라 단계별로 마을을 발전시키는 문화"라며 "마을 자체의 체계가 잡히기도 전에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주민이 소외되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에서도 마을공동체 내의 예술가와 주민들이 서로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남구에는 통도리를 포함해 마을공동체 68곳에 1천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 2016년 제11기 남북경협인천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 주 최 : INU 인천대학교 기호일보
- ▶ 주 관 : INU 인천대학교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 ▶ 후 원 : 인천상공회의소
- ▶ 기 간 : 2016년 3월 29일 ~ 6월 7일 (총 10강, 매주 화요일 19:00~21:00)
- ▶ 장 소 : 인천대학교 미래관 2F 합동강의실
- ▶ 대 상 :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 시민, 공무원, NGO 관계자 등
  - ※ 인천대학교 재학생 청강 가능
- ▶ 수 강 료 : 500,000원 (엔티비용 일부 및 졸업여행경비 개인부담)
- ▶ 접수기간 : 2016년 1월 25일(월) ~ 3월 18일(금) 12:00까지
- ▶ 접수방법 : 양식 (홈페이지 peace.inu.ac.kr 공지사항) 이메일 (ieape@inu.ac.kr) 또는 팩스 (032-850-5660) 제출
  - ※ 사진 첨부 요망
- ▶ 발 표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 후, 홈페이지 (peace.inu.ac.kr) 공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아카데미 설립 취지에 어울리는 지원자 우선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 문 의 : 동아시아평화경제연구원, TEL : 032-835-8706

강의	강의제목	강사
1강 3/29(화)	동아시아평화와 공존	개강특강
2강 4/5(화)	북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무남다와 주한 몽골대사관 노무관
3강 4/12(화)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전망	김정태 평양대마방직합영회사 이사장
4강 4/19(화)	개성공단의 시작	김철두 前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5강 4/26(화)전후	강화도DMZ 평화기행(1박2일 엠티)	이시우 사진작가
6강5/3(화)	한반도 상생, 평화엔진 개성공단	김남식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
7강 5/10(화)	평화를 신고 달리는 자동차	박상권 前평화자동차 회장
8강 5/17(화)	인천 기업의 개성공단도전기	신한용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9강 5/24(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	유용성 수석대표 중국 위해시 한국 대표처
10강 5/31(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종강특강
졸업여행(6월)	11기 졸업여행 <압록강 포럼>	

※ 강사 섭외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강화도 DMZ평화기행과 압록강포럼 총원회 참석 가능.  
 ※ 5강의 엠티비용 일부와 졸업여행 비용은 개인부담

2016년 인천광역시체육회 통합기념

# 제65회 3·1절 단축마라톤대회

2016. 3. 1 (화) 10:00~13:00 (집결 09:30)

송도국제도시 솔찬공원 관리사무소 풍차앞

3km 코스 / 5km 코스 / 10km 코스

신청기간 2016년 2월 25일(목) 까지

참가부문 3km(초등), 5km(중·고등), 10km(일반)

참가비 무료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www.kihoilbo.co.kr](http://www.kihoilbo.co.kr)

문의전화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1

※교통이 혼잡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인천대입구역 2번출구 셔틀버스 운행)



주최주관 인천광역시육상경기연맹 기호일보

후원 인천광역시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교육청 POSCO 포스코건설 REDS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정강병원 위드미요양병원 JK위드미 JK위드미NEAT 플러스병원 인천광역시인화자동차운송사업협회